

적도의 항일투사

# 김영도

박성묵 著

예산군 대술면 꺾곡리 출생 김영도  
강제징용되어 일본군 연합군포로수용소 근무  
비밀결사 항일독립활동



## 박성묵 예산역사연구소장

충남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출생  
예산농업전문대학(현 공주산업과학대학) 졸업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 활동(2006~2016)  
현) 예산역사연구소 소장  
현) 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현)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저서

『예산동학혁명사』(2007)  
『한국전쟁과 오가삼학사』(2013)  
『동학농민혁명과 예산』(2013 공동 저)

### 집필

『대흥향토지』(2017)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

#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

박성묵

지역의 역사를 기록 하는 것이 현재의 가치를 미래에 전달하는 역할이듯이 역사속에 숨어 있는 사실을 발굴하여 기록하는 것 역시 현재의 가치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예산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기록의 역할에 예산역사연구소 박성묵 소장께서 「김영도」라는 예산의 인물을 발굴하여 예산 지역사에 소중한 기록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조선의 청년이 항일운동을 하게 되기까지의 자료를 모아 일대기를 엮어 내어 예산의 인물 사료를 편찬하기까지 박성묵 소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이를 표본으로 1,100년 예산의 역사에 아직도 잠자고 있을 지역의 선조들을 발굴해 내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

이번에 발간되는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가 격동기 한국사의 아픔을 되새기어 타산지석이 되는 교훈서로서 읽히어지고 시대적 아픔을 겪은 선조들의 고난을 통해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과 비교하여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며 본 서적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 황선봉 예산군수님,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예산군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시운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은 근대산업국가로 발전하게 되었고 동양의 강력한 군국주의국가, 일본제국주의가 탄생했다. 1873년 징병제도를 실시하고 침략준비를 갖춘 일제는 '정한론'으로 무장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으로 칼을 겨누었다.

일본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키며 전쟁을 확대해 나갔다. 조선총독부는 자원수탈,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 신사참배 강요, 강제징용, 강제노역, 위안부 강제동원, 일본식 성명 강요, 문화말살 등 민족의 뿌리를 뽑는 민족말살정책을 시행했다.

일본 제국주의와 대한제국은 1876년 불평등 강화조약을 체결하였고,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에서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일본제국주의 총칼 아래 우리 민족 약 8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식민지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최대의 시련과 고통을 안겨 줬다. 그 뼈아픈 역사는 벽찬 감격과 기쁨으로 맞았던 8·15 해방으로는 치유되지 못했다. '민족반역자 청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민족분단, 4·3 항쟁, 여순항쟁, 한국전쟁을 차례로 겪으며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여전히 반목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현실이 지속된 질곡 어린 한국현대사로 이어졌다.

---

이 땅에는 해방 후에도 일제식민 지배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가족이 존재한다. 대술 궤곡리 김중철 가족사도 그중의 하나다.

그의 부친 김영도의 삶은 전혀 조명된 적이 없었다. 강제 모집되어 이역만리 적도의 땅에서 <비밀결사단>을 조직해 지하운동을 펼친 김영도의 삶과 투쟁을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청년은 누구나 갔었고, 그중에 강제노동에 혹사당해 돌아오지 못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내가 김중철 씨 가족사를 알게 된 것은 2012년, 그의 집 옆 산자락에 있는 「궤곡리 황새번식비」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소유자 김중철 씨를 만나면 서다. ‘일제징용에 끌려가 머나먼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아버지 김영도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애쓰는 아들 김중철 씨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제징용되어 간 이역만리 타국에서 겪은 아버지의 죽음은 김중철 씨와 가족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련이요, 그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제의 무자비한 침략 야욕은 조선인의 보통 사람들과 김영도 개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다.

김영도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불행은 삶의 조건처럼 되어, 아무런 근

---

거 없이도 월북했을지도 모른다는 편견으로 이웃들로부터 사상의 돌림까  
지 받으며 자라야만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 김중철의 아픔은 분노가  
되었다. 아버지의 기록과 활동상황에 대한 흔적이라도 찾고자 하는 아들  
김중철의 노력은 만날수록 간절함이 느껴져 내 마음을 움직였다.

지난 2010년 양심적인 일본인 학자 2명에 의해 자료가 발굴되어 남방열  
도 <조선독립청년당> 관련 활동 및 주요 인물이 최초로 밝혀지면서 독립운  
동사의 한 분야로 학계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자료에 김영도의 이름이  
거론됐다거나 활동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  
기 10년 전인 2000년 봄, 김영도와 함께 남방포로수용소에서 근무했던 고  
향 후배 김호식 씨가 사망하기 전 김영도의 아들 김중철을 만나 남방포로  
수용소에서 김영도의 독립활동 사실을 알려주었다. 김영도의 항일활동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다.

김호식 씨에 의하면, 김영도는 말레이시아 포로수용소에 근무하면서 일  
본군 장교 여러 명을 비밀리에 처단하고, 부대의 굶주린 조선인 청년들에  
게 군수품을 탈취해 나누어주는 등 비밀결사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결사단  
원이 모두 검거돼 싱가포르 남방사령부로 압송돼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이들의 비밀결사단 활동은 이후 자바 연합군포로

---

수용소에서 ‘암바라 투쟁’을 전개한 <조선독립청년당> 결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정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청년들이 일본제국주의 군속에 강제징용되어 남양 군도에서 전쟁의 총알받이가 된 죽음의 역사, 그리고 그곳 적도에서 적도의 열기보다 뜨겁게 조국독립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친 수많은 조선청년들의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방사령부 연합군포로수용소 내에서 펼친 평범한 조선 청년 김영도의 항일 활동은 독립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김영도의 삶은 고단한 우리 민족이 당한 수난의 역사 그 자체이다. 김영도의 항일활동이 한층 조명되고 관심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대술 권곡리 출신 김영도의 삶이 일제강점기 시작부터 일본제국주의의 가장 잔혹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 10. 20

예산 역사연구소장 박성묵

\_ 발간사

\_ 서문

## 제1장 예산 사람 김영도

출생과 가문 .....	14
유년시절 .....	21
3·1혁명과 동학의 가르침을 받다 .....	27
예산보통학교 시절 .....	31
6·10만세운동과 동맹휴교를 목격하다 .....	36
결혼, 행정강습소(杏亭講習所)를 열다 .....	42
울분을 삼키며 창씨개명하다 .....	49

## 제2장 목숨을 건 항일투쟁

강제징용 연합군포로수용소 감시원 되다 .....	54
비밀결사단 조직 활동 .....	57
우리 힘으로 적도의 땅에도 해방을 이루자 .....	70

---

### 제3장 해방 그 이후

해방, 돌아오지 못한 김영도.....	74
기다림은 황새가 되어 .....	81
감시와 보상신청 통지서 .....	88
보상신청 차별과 국가의 무책임.....	91

### 제4장 끝나지 않은 전쟁

억울한 죽음, 일본정부와 싸우다 .....	100
야스쿠니 신사에 모신 김영도 위패.....	113
끝나지 않은 한일청구권 협정.....	115
식민침략 반성하지 않는 일본.....	122
_ 후기 그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124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

제1장



예  
산  
사  
람  
김  
영  
도

## 출생과 가문

1910년 8월 10일, 예산군 대술면 귤곡리 58번지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마을 자연부락명은 ‘은행정’이라 부르는 곳으로 오래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 마을이다. 김영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백이 있었으며, 의를 신봉하여 마을 사람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견했다.

김영도의 출생 연월일에 관해 다음 세 가지 기록이 남아 있다. 하나는 『수원김씨대동종보(水原金氏大同宗譜)』 2권(卷之二)의 기록으로, 족보에는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피탈(被奪)되던 ‘경술년(1910) 8월 10일’에 태어났다. 두 번째는 1912년 6월 10일로 된 그의 호적 기록이다. 세 번째 기록은 ‘명치사십사년(明治四十四年, 1911) 5월 17일’로 기재된 「예산보통학교 아동학적부」 기록이다.

위 기록 중에서 첫 번째, 족보 기록이 출생 사실로 알려져 있다. 경술년 ‘개띠’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김영도의 부인 이예순 여사는 돌아오지 못한 남편의 생일날인 8월 10일에 어김없이 조출하게나마 생일 밥을 해 올렸고 환갑을 맞았을 때는 동네분들 모시고 아침식사를 함께 했다.

두 번째는 영도의 부친께서 1934년 흥성지청에 호적 정정 신청을 하여 ‘1912년 6월 10일’로 정정하였다. 1년 후, 1월 28일에 성명 개명 신청

을 하여 초명인 ‘복동(福童)’을 ‘영도(永度)’로 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산보통학교 아동학적부」와 「제12회 졸업생명부」 기록에는 ‘영도(永道)’로 기재되었는데 ‘道’ 자로 기재된 이유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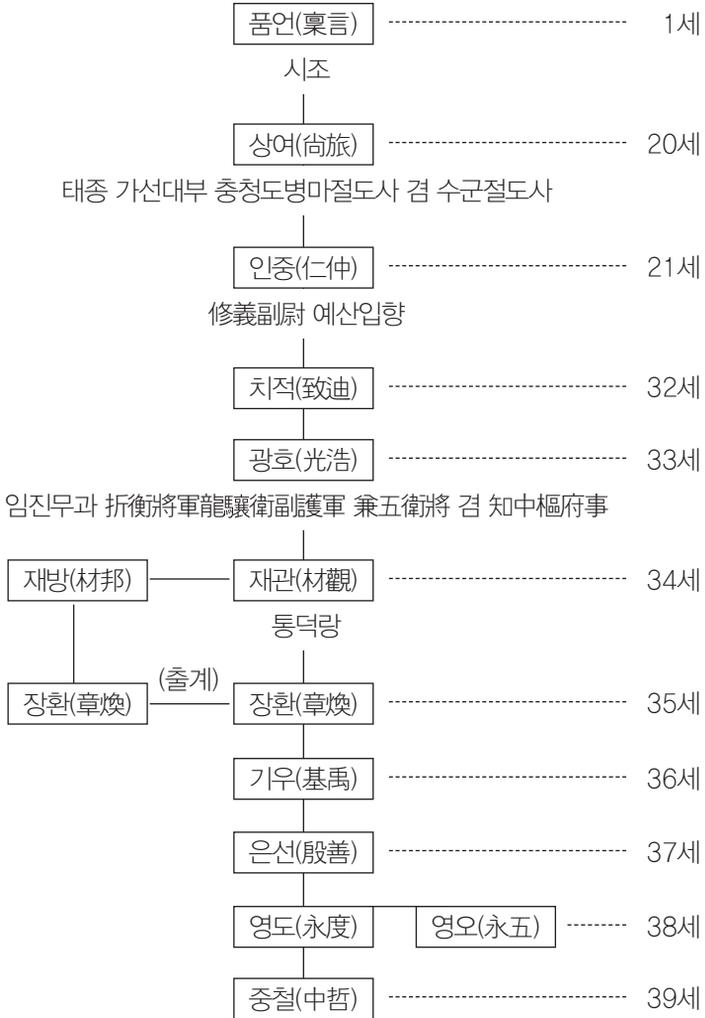
그가 태어난 12일 후, 일제의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되었고 7일이 지나 합병조약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일제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김영도가 태어난 날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지만 이미 망국으로 기울어가는 끝자락이었다.

김영도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수원김씨 시조 김품언(金稟言)은 신라 경순왕(景順王)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손자로 고려 현종 때 거란군의 침입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 충순적덕 정난공신(忠順積德 靖難功臣)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에 올라 수성군(隨城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후손들은 선조가 봉군(封君)된 수원(水原)을 관향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가문을 일으켰다. 명문대가로 알려진 유서 깊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수원김씨는 고려말 홍건적 침입시 공을 세운 김한진(金漢眞)의 후예이며, 김한진의 장손자 인중(仁仲)이 대술 지역으로 옮겨와 정착하게 되었다.

김한진은 고려 후기의 공신에 오른 인물이다. 1362년(공민왕 11)에 김용(金鏞) 등이 흥왕사(興王寺)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이를 토벌한 공으로 1등공신이 되고 순성보절공신(純誠保節功臣)의 호를 받았다.

1363년에는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福州: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로 피난했을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1등공신이 되었고, 같은 해 경성(京城)을 수복한 공으로 1등공신이 되었다. 9대조 김상려(金商旅)는 익위공신(翼衛功臣)으로 조선 태종 때 충청도 병마 겸 수군절도사, 수사(水使), 사도병사(四道兵使)를 지낸 인물이다.

## 수원김씨 계보도



1772년 (영조48) 무과에 합격한 광호(光浩)는 영도의 5대조이다. 그는 절형장군 용양위부호군 겸 오위장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순조 때는 구례현감을 거쳐 곡성현감에 부임하였다. 곡성관아는 아전들이 관수미를 허위장부로 농간을 부려 과도하게 징수하여 흠쳐 먹는 병폐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새로 부임한 김광호 현감은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고 잘못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을 백성들이 그의 애민청덕을 칭송하며 치적을 숭상했다.

영도가 태어난 은행나무 옛집은 선조들이 공부했던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워낙 많아 후면, 측면 서까래 밑에 쌓아 외벽을 두른 듯 엄청난 장서들이 있었다. 장서에는 수원김씨 선현들이 자신의 벼슬살이나 학문수양에서 얻은 실증적인 경험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었다. 후손들은 선조의 훌륭한 행적을 발굴하여 그 정신을 계승해 왔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원김씨 3대 가훈이 있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하라.

둘째, 관직생활에서는 겸손하고 청렴하라.

셋째, 나라가 외침을 당하면 목숨 바쳐 구하는 데 앞장서라.

이런 가학(家學)은 수원김씨 문중이 명문가를 유지할 수 있는 선현의 정신이 오롯이 살아서 전해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끔씩 효행 말씀을 하시는 영도 아버지는 아이들한테는 가르침을 주시는 훈장 선생님과도 같았다. 집 앞 행정(杏亭)에 영도의 또래들이 모이면 영도 부친은 근엄한 얼굴로 나타나 정자에 앉으시며 훈화 말씀을 이었다.

“애들아 이리 가까이 모여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라.”



김영도의 부인 이예순 여사가 한국효도회 '장한어버이상' 수상 기념사진 2002.10.16



이예순 여사의 장한어버이상



김영도 아들 김중철 모범상



“사람의 근본은 인륜 도덕이니라. 인륜 도덕은 바로 효이니라. 조상 없는 부모 없으며, 부모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나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부모를 봉양하고 조상을 공양함은 우리 인간의 근본이란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효를 해야 참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 잘 새겨듣고 효행에 힘써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딱딱한 나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훈화를 들은 아이들은 모두 대답하였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도둑이 솔 안에 넣어둔 돈』 이야기가 영도의 5대 조 김광호 선생 집에서 일어난 일화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김광호는 과거에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였다. 그의 부인 이씨는 남편 공부 뒷바라지에 굶은일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남편 광호는 밤낮없이 고생하는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공부에 집중했다.

마을사람들은 광호를 존경했다. 성격이 곧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분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마음씨 때문이다.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는 본받을 만한 위인이었다.

마침내 과거시험 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광호는 한양 가서 과거시험 볼 노잣돈이 없어 걱정이었다. 부인 이씨는 길쌈을 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자신의 옷고름을 잘라 터진 버선을 꿰매 신을 정도로 가세가 빈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도둑이 김광호 집에 들어갔다. 훔쳐갈 것이 없자 도둑은 솔단지라도 가져가려고 하다가, 과거 볼 노잣돈 걱정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김광호 집 솔단지 뚜



일러스트: 이순옥

뚜껑을 열고 훔쳐온 돈을 넣고 갔다.

부인 이씨가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솥뚜껑을 열어보는 깜짝 놀랐다.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다가 오히려 솥단지 안에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광호는 더욱 학문에 매진하였다.

김광호는 도둑이 넣어둔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자신의 집에 돈을 놓고 간 돈 주인을 찾는다는 방을 은행정에 붙였다. 이에 당황한 도둑은 김광호를 찾아갔고, 그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여 새사람이 되었다.

김광호는 과거에 합격하여 여러 사람의 신뢰를 받아 높은 벼슬관직에 오르게 되고 도둑의 마음까지 고쳐준 인물이었다.

## 유년시절

영도의 집은 600년 모진 풍상을 겪으며 세월을 품은 보호수 은행나무 옆에 있었다. 암수 다정히 마주보며 서 있는 은행나무는 나쁜 액운을 막아주며 마을의 평온을 지켜준다 해서 마을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위하는 나무이다. 용트림하듯 뿔어나간 가지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 멋진 정자를 이루었고, 거기에서 ‘은행나무정자’의 뜻을 가진 <행정(杏亭)>이란 지명이 나왔다. 일명 ‘으능쟁이’라 부르는 지명은 이 고장 특유의 사투리 지명이다.

집 앞 웅장한 기상을 뽐내는 은행나무는 영도의 또래들이 날마다 모이는 놀이장소였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은 혼자 노는 놀이보다 자연물을 이용하여 동무들 간 협력해 만들어가는 놀이를 주로 하며 놀았다. 칼싸움 놀이, 말 타기, 땅 빼앗기 놀이 등을 하며 해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놀이문화 만큼은 풍부했다.

어른들은 마을 앞 천연 습지천에서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쑤어먹기도 했다. 여름 복더위가 한창일 때는 동네 사람들은 저녁 어스름이면 마당에 짚 돛자리를 깔고 옆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밥을 먹었다.

가을이 오자 따갑게 내려쬐는 햇빛, 드높아진 푸른 하늘을 품은 꺾다리 산자락에는 옅은 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 팔월 한가위 대보름이면 비록 나라 잃은 식민지이지만 마을사람 모두 따뜻하고 훈훈한



결곡리 원동 '은행정' 간판



'은행정'에 있는 천년수 은행나무 두 그루

인정이 넘쳤다.

추석날 아침이면 영도의 집에서는 정성으로 빚은 음식을 차리고 차레를 올리고, 아침밥을 먹은 후 집안 어른과 함께 성묘를 갈 준비를 서둘렀다.

“얘들아, 가기 전에 이것 좀 마시고 가거라. 산에 오르면 목마르단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영도와 조카들을 불러 감주를 내주셨다. 영도와 조카들은 시원하게 감주를 들이킨 후 어른들을 따라 앞산 성묘길을 떠났다.

전망 좋기로 유명한 국사봉 산자락에 있는 조상의 묘에 가기 위해 논둑과 밭둑을 지나 안락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고새울 냇가를 건너갈 때면 성묘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행렬 속에 끼어 성묘를 가고 있는 어린 영도는 자신의 뿌리가 수원김씨 문중이란 사실에 은연중 자부심을 가졌다. 뿌리에 대한 자부심은 영도의 마음에 깊이 자리했다.

국사봉 입구에는 황새가 서식하는 왕소나무 숲이 있었다. 암수 황새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라도 된 듯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고 날갯짓을 하며 일행을 반겼다.

묘역에 다다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누님과 사촌 누님이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을 정갈하게 상석에 진설하고, 모두는 마음을 모아 절을 올렸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는 벌써 점심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집안 형님과 함께 집안 어른들께 문안인사차 온 새 형수는 국과 밥과 맛난 음식을 날라 아이들 밥상에 놓았다.

“도련님, 맛있게 드세요.”

형수가 도련님이라 부르는 소리에 어린 영도는 자기도 새사람이 된 것처럼 무척 흐뭇하고 기뻐다. 집안의 아이들은 모처럼 싫것 이것저것

먹으면서 명절날의 즐거움을 누렸다. 이런 모습은 집집마다 오래된 집안 전통이었다. 가을이 되어 은행이 노랗게 매달리면 누군가 용감하게 은행나무에 올라가 가지 끝까지 다가가 은행을 털기도 했다.

겨울에는 안락산 일대를 누비며 산토끼, 오소리 사냥으로 호연지기를 길렀다. 영도는 개구쟁이면서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친구들을 이끌어 대장 노릇을 했다. 그는 대장답게 용맹하고 몸은 날렵하고 싸움도 잘했다.

함박눈이 내린 겨울 어느 날, 안락산에서 토끼몰이하다 산 너머 동네 아이들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서로가 토끼몰이를 하던 중이었다. 자연히 시비가 붙었다. 상대 쪽 대장쯤 되는 자는 영도보다 두세 살 위로 청년에 가까웠다. 그는 대장답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야, 여기는 우리가 먼저 왔으니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며 호통 치듯 말했다. 기세가 눌린 영도 친구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영도가 입을 열었다.

“우리도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할 순 없다. 여기서 적당히 지역을 나눠 토끼몰이 하자.”

“뭐야? 이 새끼가 형님들 말을 안 들어?”

“이 새끼, 혼내 줘야겠군!”

부대장쯤 되는 자가 영도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영도는 순식간에 몸을 낮추며 왼손으로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내동댕이쳐 버렸다.

“으악, 으으!”

상대편은 소리를 지르며 산비탈로 굴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상대편 대장과 일행이 영도를 향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조그만 새끼가 사람을 패?”

“이 새끼 맛 좀 봐라!”

한 놈이 먼저 토끼몰이 하던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영도는 재빠르게 몽둥이를 피해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돌려차기로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 다음 앞으로 360도 돌아 발차기로 대장의 가슴을 날리자 대장은 뒤로 굴러 떨어져 나갔다. 발차기 두 번으로 싸움은 끝났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쉬쉬하며 산길로 사라졌다.

영도는 날마다 뒷산에서 무술을 연마하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다. 특히 휘몰아 차기가 일품이다. 상대방 쪽으로 머리를 숙이는 동시에 힘차게 땅을 디디 위로 솟구쳐서는 공중에서 허리를 틀어 뽑어내는 힘으로 상대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차는 것이다. 공격한 뒤에는 낙법으로 안전하게 떨어진다. 무술에서도 찾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을 지닌 영도였다. 친구들은 영도가 믿음과 용기를 보여줘 항상 따랐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조선 민중의 삶은 가난과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은 한창 성장할 나이인데도 항상 배가 고팠다. 일제의 폭압적 무단통치는 점점 강화되고 삶은 피폐되었다.

이른 봄날, 마을에 나타난 일본인 측량기와 보조원들이 영도네 집 뒷산 국사봉에다 측량에 필요한 삼각점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며칠 후 이들은 마을 논밭 경계마다 꽃은 대나무 깃대를 측량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지적’이란 새로운 형태의 토지개념을 이해하고자 내 땅이 어떻게 측량되는지, 혹시 왜놈들이 빼앗아가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모두 나와서 측량 장면을 구경했다. 동네 아이들도 신기한 듯 측량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대표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지배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경제수탈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부친은 영도의 나이 6세 때,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신의 집 사랑채에 글방을 개설했었다. 학덕 높은 글방 선생을 모셔다가 자식은 물론, 수원

김씨 문중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매사에 꼼꼼하고 강한 성품을 지닌 부친은 영도의 그릇된 행동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호통을 치시고 바른 훈육을 빼놓지 않으셨다.

장대한 기골을 타고난 영도는 해가 바뀌면서 담력도 커졌고 제법 어른스러웠다. 부친은 아들에게 대범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체계적인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용기가 뛰어나도 지식이 없으면 쓰임새는 한낱 왈가닥패 우두머리에 그치고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 3.1혁명과 동학의 가르침을 받다

영도가 열 살 되던 해 한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3·1혁명’이 서울 탑골 공원에서 분출되었다. 만세시위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거족적으로 일어났다. 암울한 일제 치하에서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왜적의 총칼에 맞서 싸웠다.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무단통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일본인에 의한 독살설이 퍼져 나갔고, 한민족의 증오는 극에 달했다. 천도교의 손병희, 박인호 등이 기독교 및 불교의 지도자와 미리 연락을 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도쿄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에 의해 점화되었다.

예산 지역에서 3월 3일, 예산읍내 당차산, 금오산에 횃불이 타오르고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퍼져 나갔다. 천도교 예산교구는 거사일을 3월 10일 예산읍 장날로 정했다. 당일 곳곳의 교인들과 기독교인, 단군교와 함께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어서 천도교 예산교구장 김기태(金基泰) 씨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선전격문을 살포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영도는 아버지를 따라 예산장에 왔다가 만세시위를 목격했다. 시위대 앞쪽 행렬에는 마을에 사는 동학 천도교 교인 5~6명이 참여해 목청 높여 만세를 외쳤다.

신양, 대술 등 각처에서 모인 2천여 명의 시위대는 시장을 출발해 헌병대(현 예산초) 쪽으로 향했다. 이윽고 말을 탄 일제 헌병들은 칼을 뽑아 들고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을 해산하라고 소리쳤다. 시위대가 더욱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자 일제 헌병들은 군중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발포하기 시작했다.

헌병들의 총칼에 앞장섰던 군중 3~4명이 쓰러졌다. 놀란 군중들은 물러서면서 흩어졌다. 헌병들은 흩어지는 군중들을 추격하면서 닥치는 대로 칼로 어깨를 내리쳤다. 여러 명이 쓰러졌다. 회색 두루마기에 유희이 물들었다. 헌병이 지나간 후 어른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업고 한 곳뿐인 순천병원(원장: 이종대)으로 옮겼다. 영도는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없어 부상자들을 부축해 주었다.

이후에도 만세시위는 각 면단위 또는 큰 마을에서 수일째 끊어지지 않았다. 천도교 예산교구 서무관장 정태영은 고향 선장에서, 덕산접주 출신 고운학 선생은 덕산장날, 전제관장 이진해 선생은 4월 3일 고덕한 내장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갑오동학혁명 복점일기 『조석헌 역사』를 남긴 조석헌 선생을 비롯해 문병석, 방학삼 선생은 탄중리에서 만세시위를 하고 신례원시장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3·1혁명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차이, 즉 종교와 사상, 남녀노소를 뛰어넘은 거족적인 항쟁이었다는 것을 영도는 깨달았다. 국권침탈 이후 3·1혁명을 계기로 이 나라는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되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9년, 영도의 나이 10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영도는 가끔 이웃 ‘담안’에 사는 오호준(吳浩準, 1905~?)이란 형님 집에 자주 놀러 갔다. 호준의 부친 오길영(吳吉英, 1872~?)은 갑오동

학혁명에 농민군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역적동비’라는 관의 지목을 받아 차령산중에 피신했다가 그의 고향 해미로 돌아가지 못하고 궤곡리에 정착했다. 궤곡리에는 동학혁명에 가담하였다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체포를 피해 은신처로 정착한 동학교도가 여러 명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은 궤곡리 마을 전통풍습으로 이어졌다.

호준의 집은 초가집 치곤 큰 규모였다. 동학 천도교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위채 마루 기둥에는 한지에 쓴 주련글씨가 붙어 있었다.

「도기장존사불입(道氣長存邪不入 : 도의 기운을 길이 보전하니 샷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네)」

「세간중인부동귀(世間衆人不同歸 : 세상의 못사람들의 인심으로 돌아가 어울리지 않으리)」란 수운 대신사가 쓴 입춘 시이다.

밤낮으로 정성껏 몸 속에 계신 무극한울님께 심고하고 배호흡을 할 때도 몸 속에 계신 한울님을 사유하니 도의 기운이 몸에 어리어 샷된 의식이 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영도는 호준의 부친을 뵈고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부친께서는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한울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사람이 하늘이란다.

마음과 기운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천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천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존경받지 못하고 불안하면 천지부모님께 불순한 것이다.

이런 일은 불효란다.

천지 부모님을 거스르는 이런 일이 가장 큰 불효이니 조심하고 조심하기 바란다.”

열두 살이 되던 해 영도의 부친은 활발하고 명석한 영도를 예산보통 학교에 입학시켰다. 부친은 그간 세간살이를 쌓아두었던 방을 영도의 공부방으로 사용케 하기 위해 말끔히 치웠다.

깊은 밤, 돌담, 흙벽과 벗짚을 엮은 초가집에 호롱불 켜 놓고 글 읽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 예산보통학교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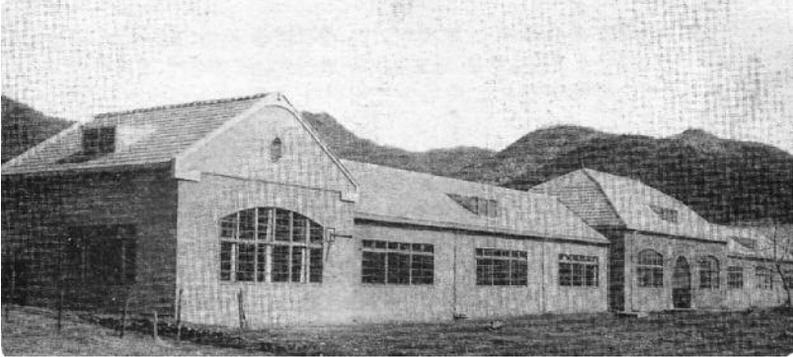
남달리 영리하고 민첩했던 영도는 어머니가 해주신 새벽밥을 먹고 예산보통학교에 다녔다. 학교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았다. 옛 대지동 면소가 있었던 동천삼거리를 지나 왼쪽으로 돌아 집채만 한 여러 개의 바윗돌 사이로 구불구불 가파른, 일명 ‘돌고개’라 불리는 고갯길이 시작되었다. 바윗돌은 옛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고인돌’ 유적이라는 설이 전해오고 있었다. 돌고개를 넘어 장씨들이 사는 집 앞 건넛길을 따라 내려오면 다리 없는 시산리 내가 나오는데, 이 내를 맨발로 건너야 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시루뫼 고개를 넘어야 했다. 고갯마루부터는 향천골이라고 했다. 거기서 약5리를 더 가면 예산보통학교에 이른다. 집에서부터 6.5km 정도의 통학거리였다.

궐곡리에서 함께 입학한 동기는 이완진(李完振), 이복성(李卜成), 김성갑(金聖甲)과 함께 네 명이었다. 이중 고세울에 사는 이완진은 영도보다 4살 위였다. 영도와 같은 반에는 후일 1932년 예농비밀독서회 활동을 했던 박배훈(朴培薰)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가훈이 바른 집안의 자제들이 많았다. 영도는 책보를 두르고 이복성과 앞 다투어 달렸다.

가난에 끼니 걱정하며  
하루 한두 끼 못 먹고  
맹물로 해결해야 살아가던 세상  
어머니가 새벽밥 지어  
제일 먼저 도시락 싸시며  
‘내새끼 열심히 공부하거라’  
다독거리시며 새벽 시름을 잊으시고  
아들 책보자기에 넣으신다.

동녘하늘 아직 어슴푸레  
조금 있으면 일어날 내 새끼  
그때까지 잠시라도 식지 말라고  
가마솥 발 옆 따뜻한 부뚜막 위  
책보 속 도시락은 온기 가득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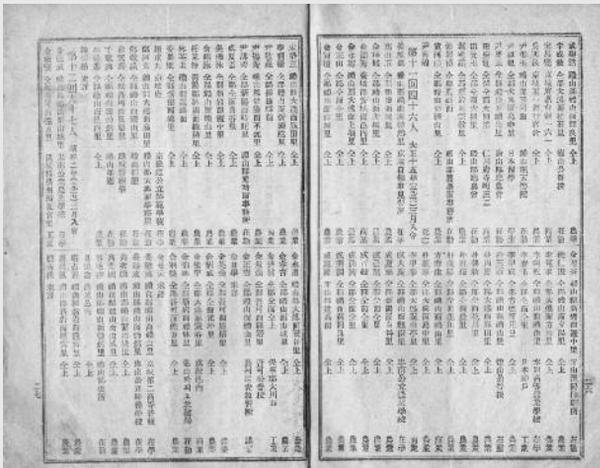
어제는 보리밥에 무말랭이 무침  
오늘은 어머니께서 무엇을 넣었는지  
책보 어깨에 둘러메고서  
안락산 줄기 돌고개 넘어  
시산리 시루뒀 고개 뛰어가다 보면  
김칫국물이 보자기에 스며들어  
교실 책상에 펼쳐놓으면  
보자기에 붉은색 수채화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림  
시름한 어머니 향내 그려졌네.



옛 관아 터에 신축한 예산보통학교 전경(1923. 1)

예산보통학교는 예산향교 남쪽에 있었다. 학생 수는 늘고 학교의 모든 시설은 협소하기 그지없었다. 영도가 입학한 그해 학생 수가 100여 명으로 늘어 학교 설립 이후 최대 규모였다. 경남선이란 철도가 가설돼 주교리에 예산역이 생기면서 예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비좁은 예산보통학교도 옛 관아 동헌 자리에 신축하였다. 원래 동헌자리에는 나라를 빼앗기자 헌병대 본부가 들어섰다. 3·1혁명 때는 시위하는 동포들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했던 곳이다. 학교 동남편 쪽에는 죄인을 처벌하는 태형장이 있었다. 무수한 백의민족이 이 형대에서 고통을 당하였다. 헌병대는 3·1혁명 후 폐지되고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영도가 3학년이 되자 동헌 자리에 신축한 예산보통학교 신축교사에서 배웠다. 당시 예산보통학교는 내포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최고의 최신식 건물이었다.





1912년 학교 설립 후 동창회에서 최초로 만든 <여산공립보통학교 동창회보> (1931년 발행) 학교 연혁 및 기본 자료를 충실하게 기록했으며 12회 졸업생 김영도의 이름이 왼쪽 하단 첫째 줄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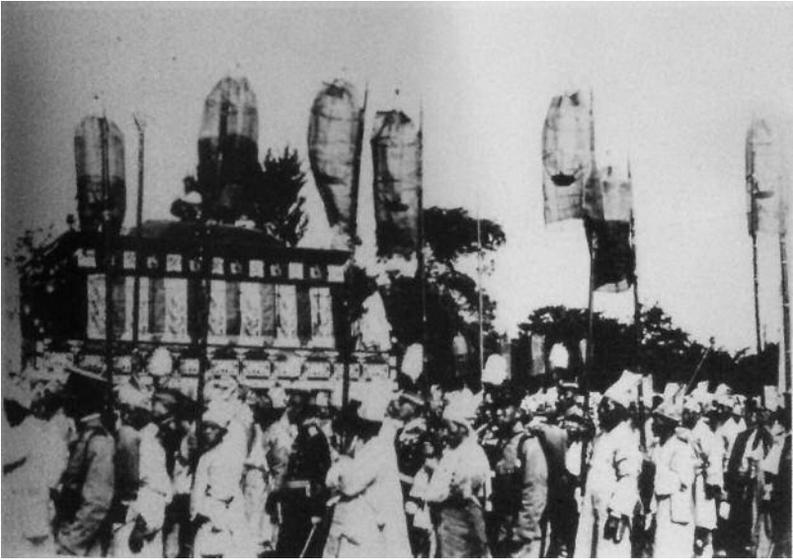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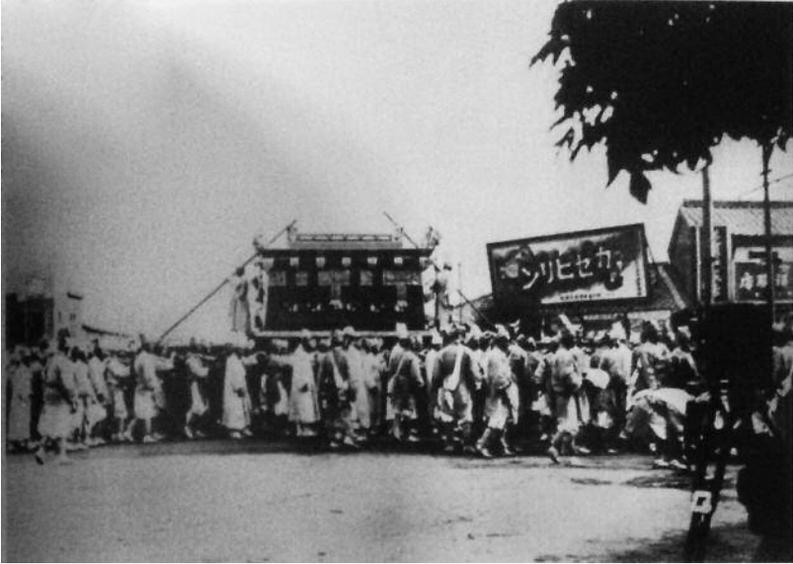
## 6·10만세운동과 동맹휴교를 목격하다

1926년 4월 26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죽음으로 조선 반도에는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 망곡단(望哭團)·봉도단(奉悼團)이 조직되었다. 일제의 강압 통치에 저항하는 민중들은 국장일인 1926년 6월 10일에 일제의 가혹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에 맞서는 3·1운동 이후의 대표적인 항일민중투쟁인 6·10만세운동을 사회주의 진영과 함께 전개하였다.

이해 5월, 조선공산당과 천도교가 연합하여 6월 10일의 융희황제(순종) 국장일을 기회로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이때 천도교 4세 교주 춘암상사 박인호의 조카인 천도교청년동맹의 박래원이 격문 10여만 매를 인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독립단’이란 도장을 날인하여 58개 지방에 배부하였다.

격문이 천도교 예산교구에 도달하자 교인들은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특히 천도교 구과 전위대인 「예산군 천도교 청년동맹」단원 21명 중 궤곡리 출신 오호준(吳浩準), 오필준(吳弼準), 이기철(李起哲)이 참여하였다. 오호준은 영도에게 동학사상을 가르쳐준 인물이다.

그러나 계획이 발각돼 투쟁 지도부가 검거되었고 계획했던 전국 교구가 수색을 당하고 지역교구 책임자들이 체포돼 혹독한 고문과 탄압을 받았다. 예산군에서는 예산천도교청년동맹을 이끌었던 예산읍내 거주



순종 장례행렬(위). 장례행렬에 완전무장을 한 일본군이 감시하는 모습이 보인다(아래)  
(사진 : 『일제강점기』 박도 역음 P357)



신간회예산지회 창립대회 개최 장소였던 옛 예산예배당 자리(예산읍 예산리441-5)

하는 정환석, 신암 탄중리 문병석, 고덕 용리 마기상 등은 지역의 사회 운동가들과 함께 예산읍내 당차산, 광시 서초정리 망곡산, 삼교 꽃산 정상에서 군중을 집결시켜 북향을 보고 곡을 하며 순종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러한 6·10만세운동의 경험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협동 전선단체인 신간회의 결성과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신간회는 일본제국주의 통치하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항일사회운동 단체로, 강연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는 점점 확대되어 예산지회를 비롯하여 전국에 150여 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었다. 신간회 예산지회는 1927년 11월 14일 <예산예배

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예산은 대술 출신의 독립운동가 평주(平洲) 이승복((李昇馥)과도 인연이 깊은 고장이다. 평주는 1920년에는 노령에서 박은식(朴殷植)과 함께 <청구신문(靑丘新聞)>을 발간했으며, 신문활자를 노령으로 운반한 일로 인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6개월간 구금당하였다. 1927년 1월 신간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동년 2월 신간회 창립대회에서 선전부 총무간사에 선임되었다. 아울러 그는 고향 예산에서 1927년 11월 14일, 신간회 예산지회 설립하는데 이종승(李鍾承) 김진동(金振東) 성춘경(成春慶) 문병석(文秉錫) 등을 만나 지원역할을 하였다.

창립식 때는 본부를 대표해서 홍기문(洪起文)이 예산에 내려와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신간회 창립의 큰 뜻을 예산 지역사회에 널리 알렸다. 예산에서는 한말 동학혁명으로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항일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운동은 잃어버린 나라와 삶의 터전을 되찾겠다는 자발적 민족애와 헌신, 희생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신간회 예산지회의 창립과정은 민족협동전선의 형성과정을 잘 보여준다.

6·10만세운동 때 서울 시내 학생들은 동맹휴교를 단행하기도 하였는데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 여파로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동맹휴교를 단행했다. 이 소식은 예산보통학교 교정에도 전해졌다. 왜놈 교육에 대한 항일 기운이 전교생은 물론 영도의 가슴에도 일렁거렸다. 영도는 일본인 교사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식민지 주입 교육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인 교사들의 학대에 가까운 훈육 방식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부족한 교원을 1년짜리 단기 코스를 이수한 수준 낮은 교사들로 대거 채웠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수가 없었다. 특히 예산공립농업학교 하라구찌[原口] 선생은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학생들의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을 하거나 욕설



맹휴학했던 1학년은 학부모의 설득으로 복귀하였으나 2학년생 전원은 퇴교 원서를 일괄 제출하고 부당한 학교 당국의 처분에 맞섰고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예산경찰서와 협의해 주동자를 더 색출해 구속하려는 강공책을 모색하고 2학년 집집마다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고압적인 글귀로 학부모들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사태가 지속되자 예산보통학교와 지역 내 사립학교가 연대하여 동맹휴교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학교마다 학생 단속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예산 지역 유지들은 동맹휴교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대책을 강구하고 학교 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20일 만에 동맹휴학을 마치고 학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생 7명은 퇴학처분을 면치 못했다. 영도는 퇴학을 당한 7명의 선배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분이 가시지 않았다. 정당한 요구와 저항이 힘의 논리에 밀려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영도가 학교에 다니던 1921년부터 1926년까지 당시 초등학생들이 일으킨 동맹휴학은 전국적으로 342건에 달했다. 영도가 다닌 예산보통학교 6년의 시간은 일제식민교육에 반대한 동맹휴학의 전성기였다. 그동안 일제에 저항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1926년 6·10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운동처럼 주로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 결혼, 행정강습소를 열다

예산공립보통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1927년 3월 23일 졸업식이 거행됐다. 그 전하는 순종 장례일에 맞춰 일어난 6·10만세 사건으로 3일간 등교를 거부하고 국사봉에 올라가 마을사람들과 순종의 마지막 장례식을 떠오르며 망국의 슬픔을 함께했다. 삼천리강산에 또다시 제2의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날 것처럼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반감이 높은 한 해였다.

지역 주민들의 반일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졸업식장을 나온 학생 몇몇은 본정통 골목길에서 일본 제국주의 교육에 대한 반감의 표시로 검정색 교복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행위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풍습은 ‘백의민족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라’는 뜻과 함께 ‘계란을 던져 껍질을 깨듯 식민지 교육의 틀을 깨고 조국의 독립에 힘쓰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1927년 3월 졸업식을 앞두고, 조선인 교사의 사죄의 고백이 있었다. 영도는 조선인 교사가 일본의 압력 때문에 거짓 교육을 해온 것에 대해 눈물로 사과하자 이에 충격을 받았다. 착취당하는 조선 백성들의 참상을 보아야 했던 영도는 앞으로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영도는 예산농업학교를 진학하려 했지만 일제식민지 교육을 받을 필

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학교를 졸업한 영도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벌써 영도의 나이가 19세가 되었다. 영도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영도의 부모님은 더 늦기 전에 영도를 장가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신앙면 서계양리에 사는 전주이씨 이온규의 딸 이예순(李禮順)을 배필로 맞 아들였다. 부인은 영도보다 네 살 아래였다.

영도는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허무함을 느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라 안팎은 온통 애국 민족 계몽운동을 펼치는 새로운 시대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영도는 자신도 뜻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도는 마을에 ‘야



행정강습소 옛터 곶곡리 은행나무 옆 서쪽에 있었다.(곶곡리 57번지)

1 全 殷植	11 全 永元	21 全 淨美
2 全 根植	12 全 永毅	22 全 禮順
3 全 寅植	13 全 永地	23 全 德性
4 全 長善	14 全 永和	24 全 順禮
5 全 成龍	15 全 晚植	
6 全 易男	16 全 恒植	
7 全 正敦	17 全 啟善	
8 全 易龍	18 全 曼善	
9 全 易成	19 全 永潮	
10 全 冬濟	20 全 礎礎	
11 全 季性	21 全 東燠	
12 全 季敦	22 全 貴植	
13 全 仁善	23 全 殷慶	
14 全 永五	24 全 氏	
15 全 基願	25 全 氏	
16 全 政善	26 全 林菊	

杏亭講習所先生任 全 永度

강습 회원 명단 '행정강습소 선생님 김영도'라고 되어 있다.

학'을 설립하고 싶었다. 배우지 못한 동네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가정형편이 나은 편이라 보통학교를 졸업했지만 대부분 동네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 시대는 배워야 사람 구실할 수 있으며 왜놈들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려면 배워야 한다는 게 영도의 생각이었다.

영도가 마을 어르신을 직접 뵙고 교육을 위해 필담을 열었다.

“마을에 강습소가 필요합니다. 마을사람들에게 글을 깨우쳐 문맹을 퇴치시켜야 합니다.”

“마을 발전과 독립을 위해서도 배우지 않고선 어렵습니다.”

영도의 의욕과 설득에 감명 받은 동리 사람들은 뜻을 모으고 다같이 참여해 영도가 직접 설계한 강습소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강습소가 들어선 곳은 영도의 집안 아우뻘 되는 김영상 씨가 제공한 궤곡리 아래 은행나무 옆 57번지이다.

마을 어귀에는 600년 고진풍상을 겪으며 세월을 품은 은행나무가 있다. 암수 다정히 마주보며 서 있는 은행나무는 나쁜 액운병겁을 막아주며 마을의 평온을 지켜준다. 마을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위한다. 만약 정성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을 갖춘 보호수로서의 자연유산은 없었을 것이다.

용트림하듯 뻗어나간 가지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늘 아래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어도 누군가에 의해 멋진 정자가 지어졌다. 정자의 이름은 ‘은행나무정자’의 뜻을 가진 <행정츠향>이라고 명명되었다. ‘행정’은 내포지역 특유의 늘어진 경향의 사투리로 ‘은행정이’로 변천되었다. 지금도 이 마을 지명은 궤곡리보다 ‘은행정이(으능쟁이)’라 부른다.

정면 5칸, 측면 12자 폭의 초가 맞배지붕으로 높게 건립하였다. 바닥

은 구들장을 설치해 추운 겨울날 난방을 할 수 있었다. 강습소가 건립되자 마을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식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영도는 학생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과 공경으로 가르쳤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즐거워했다.

강습소는 수원김씨 문중과 문맹퇴치를 고대하던 향리에서 점점 명성이 높아졌고 지지를 받게 되었다. 농한기에는 동네 형님뺄 되는 총각은 물론 아주머니들도 찾아와 배웠다. 영도는 강습소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강습소(杏亭講習所)규정」을 만들어 강습 업무를 관리했고, 매일매일 학업을 점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여 학습효과를 배가시켰다.

행정강습소가 소문이 나자 대술지서 일본순사는 수시로 나와 강습소를 감시했다. 혹시라도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고 한글을 가르쳐 항일의식을 고취시킬까 감시하기 위해서다.

어느 날 일본순사가 강습소를 감독한다며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다. 영도는 재빠르게 한글 교육 자료를 숨겨두고 철판에 사람 인체를 그려 놓고 부위마다 일본어를 썼다. 마침 일본순사가 당도하자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구찌口(くち)란 일본어로 입이란 뜻입니다.”

“구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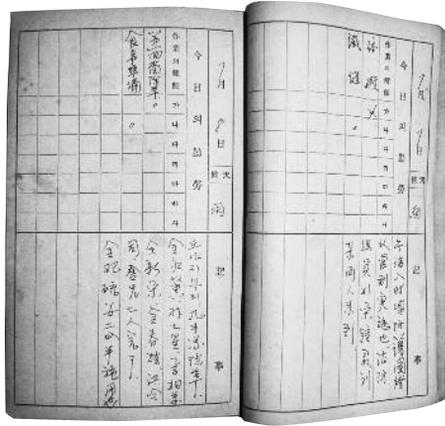
“따라서 하세요.”

“(다함께) 구찌!”

“코는 하나, 鼻(はな).”

“(다함께) 하나!”

학동들은 일본말을 큰소리로 따라했다. 일본어 교육의 강화열기가 높은 행동 야학당을 목격한 일본순사는 입가에 흠족한 미소를 띠며 “대일



김영도가 쓴 자작농경일지(1938년)

방호단 등화관제 실시(7월 7일), 마을청년 7인과 함께 논 제초작업 완료(7월 8일) 등 일상활동 등까지 상세히 기록한 농경일지

본제국의 충량한 국민이 되기 위해 더욱 공부에 열중하기 바람. 이상” 명령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다시 숨겨두었던 한글교재를 가져와 공부하기 시작했다.

영도는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쳤다. 영도의 부인 이예순 여사도 야학당에 다녔다. 1931년 5월 대술공립보통학교가 개설되면서 강습소는 학동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영도는 문맹퇴치를 위해 교육대상을 넓혀 어른들을 모집해 가르쳤다.

1933년 9월 27일 자 <매일신보> 기사 내용을 보면, “예산군에서 일반 민중의 문맹타파가 제일 급선무라 하여 소화2년(1927)부터 각리 <연문강습소>를 개강케 하여 다수 문맹을 극력 타파케 하였거니와…… 군하 12개면 175개리에 강습회 수가 251개소오, 주최자 수가 244명이오, 강사 수가 261명이오, 강습 회원 수가 남자 3,701명, 여자가 1,500명 계

5,201명이오, 소요경비가 1,152원 90전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신문기사로 보아 당시 강습소는 예산군내 곳곳에서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열기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행정강습소를 연 지도 벌써 8년째, 영도는 강습소에 정열을 바쳤다. 그동안 아이 소식이 없어 영도 부모님은 큰 걱정을 했는데 8년 만에 첫째 딸 연식(蓮植)을 낳았다.

행정강습소를 열어 문맹퇴치에 큰 공헌을 세우고 뛰어난 학식과 남다른 지도력을 갖춘 영도는 대술면 청년회장을 맡았다. 열성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는 그의 모습을 본 대술면장 박원종은 영도를 대술면사무소 고원으로 추천해 근무시켰다. 업무처리를 잘해 한때는 예산군청 특작계에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면사무소 고원은 30엔도 안 되는 박봉의 월급이었고, 면장은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김영도에게 마을별 군수물자 할당 및 모금 일을 시켰다. 영도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 올분을 삼키며 창씨개명하다

1940년 2월, 대한 추위는 갔지만 겨울 눈바람은 얼어붙은 동토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살을 파고드는 겨울 찬바람과 눈도 봄 시샘에서 봄 바람에 밀려나게 마련이다. 영도의 집 앞 고새울 냇가 갯버드나무가 곧 다가올 따스한 봄기운에 조금씩 눈망울을 조금씩 키우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켈곡리 구장 김영찬은 긴급한 전달사항이 있는지 바쁘게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김영찬 구장은 영도와 같은 향렬로 수원김씨 집안 형님뻘 되는 사이였다. 김영찬 구장은 마전리 구장과 함께 대술면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친일 구장 중의 한 명이었다.

“처사 어르신 계슈”

아침밥을 방금 마친 영도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안마당에 서 있는 구장을 보았다.

“아니 형님, 아침 일찍 무슨 일이오, 아침 식사하시죠.”

“아닐세, 아우님 아저씨와 간단히 상의드릴 말이 있네.”

“그럼, 들어가시죠.”

아침밥상을 성급히 물린 영도 부인은 삶은 고구마를 내왔다. 방안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고구마가 달콤한 맛을 풍겼다. 영도는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화로를 가까이 옮겼다. 김구장은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저씨,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놈들이 조선사람 모두 왜놈 이름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어제 떨어졌습니다. 다른 종친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중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최말단에서 수행하는 구장직을 맡아 동민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지탄을 받아온 김영찬 구장이지만 창씨개명 만큼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뭐라, 왜놈 이름으로 바꾸라고? 이런 강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물자 수탈, 사람 수탈에 혈안이 되더니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라. 참으로 지긋지긋한 왜놈세상이구먼!”

듣고 있던 영도는 끌어 오르는 울분을 삭이며 말했다.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해 조선인의 혼을 말살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강제로 이름까지 바꾸라 하다니, 그것은 조상을 부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미 근동에 사는 한산이씨, 신양 백석동 풍양조씨 등의 문중에서도 일제의 강요 앞에 울분을 삭히며 창씨개명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한산이씨(韓山李氏)는 ‘목산(牧山, マキセマ마키야마)’으로 한 것은 고려말의 목은 이색 선생의 호를 따서 목산으로 창시했으며 동학농민 혁명에 가담했다가 피난 정착한 같은 마을에 사는 해주오씨 집안도 ‘오산(吳山)’으로 창씨개명 했다.

“우리 수원김씨 선조께서 처음 대술 땅에 정착하신 지 어언 450년 세월이 흘러왔는데 왜놈 이름을 사용하게 되다니..., 조상님 뵈옵 면목이 없구나!”

영도 부친은 창씨개명을 쉽게 받아 드릴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원김씨 종친회가 열렸다. 토론 끝에 결국 창씨개명 결정을 내렸다. 성과 수원김씨의 본이 결합된 형태로 「金原カネハラカ네하라」

로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름은 본래 이름에 추가하여 개명하거나 이름의 일부를 개명하도록 하였다.

창씨개명은 새로운 씨(氏)를 설정하고 이름을 개명하는 절차다. 개정된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6개월 시한인 8월 10일까지였다. 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개정조선민사령 시행 당시의 호주의 성(姓)을 씨(氏)로 하였다.

영도 부친은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다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동민 중 마지막으로 개명하였다. ‘金原利雄(カネハラ トシオカ네하라 토시오)’ ‘수원김씨 남아로 태어나 이로움을 주는 뛰어난 사람’이란 뜻으로 김영도의 개명이 이뤄졌다. 창씨개명은 식민지 압박을 당하는 조선인에게 커다란 설움이요, 단발령 이후 일어난 최대의 민족혼 말살 정책이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었다. 서열(序列)과 소목(昭穆)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항렬이면 같은 자(字)로 작명(作名)하는 전통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항렬자의 선택은 이른바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의 오형상생(五行相生)과 갑(甲)을(乙) 병(丙) 정(丁)의 간지(干支) 또는 천자문 등으로 일정한 법칙을 적용하였다. 이름 하나를 짓는 데도 음양오행 상생의 철학과 우주관을 담았던 것이다. 그러나 창씨제도의 시행은 이러한 종래의 전통과 철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압이었다.

창씨개명 강요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의 시책에서 비롯된 민족혼 말살을 기도한 일제의 야만적이고 잔악한 식민통치의 표상이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흑독한 수난의 기록이며 치욕의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

## 제2장

■  
목  
숨  
을  
건  
항  
일  
투  
쟁

## 강제징용 연합군포로수용소 감시원 되다

김영도가 남방 말레이시아 연합군포로수용소에 근무하게 된 배경은 일제가 1937년 본격적인 중국 본토침략을 감행한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광분의 제국주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비롯된다. 가혹한 식민지 체제에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일제는 전국 각 읍·면 단위에서 군수물자 보급을 위한 수탈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김영도에게 배당된 마을별 군수물자 할당 및 모금 일을 영도의 양심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전전공공하는 면장과 충돌이 일어났다. 면장은 징용이라도 보내 실적이라도 쌓아보려는 꼼수로 강제징용 대상에 영도의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연기해 왔는데 앞으로 언제 강제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갈지 모른다.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갈 바에는 차라리 군속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냉혹한 현실과 마주한 영도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

김영도는 1942년 5월 무렵에 남방(동남아시아·남태평양)에서 잡힌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포로감시원이 되는 간단한 시험을 치렀다. 영도는 서른세 살 최고령의 나이로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3천여 명의 조선인 청년들과 함께 1942년 6월 12일 부산 서면 임시 군속교육대(일명 노구치 부대·지금의 하일리아 터)에 입소해 2개월간 훈련을 받았다.

# 光榮の責務

俘虜監視員の應募資格と手續

米英人俘虜の監禁に從事する院庭樣希望してある、簡歷の手續きの要員として半島五年を採擧の事その他については全營最寄りの府が發表されるや直探大東亞戰事元部隊に問合せればよい

一、年齡二十歳以上概ね三十五歳までの朝鮮人男子

二、身體強健、特に傳染性疾患なき者で勤務に堪へ得る者

**肺病初期患者の献立**

厚生科學研究所の病院で實驗好成績を収めてゐる飲食献立を本博士が婦人俱樂部六月號に發表、配給品で出来るので評判

三、國語に依る日常會話に支障なき者(國民學校四年終了以上の者を主とす)にして身元確實な

たり或は讀つた自由や取仕に慣れたり、個人主義的な教育に終つた

「광영의 책무」라며 부산일보에 실린 포로감시원 모집기사(1942. 5. 29)

민간인 군무원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건 철저한 군대식 교육이었다. 포로는 감시와 감독의 대상일 뿐, 포로를 인도적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

포로에 맞서려면 폭력밖에 없다고 배웠다. 포로는 동물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포로보다 우월하게 보이려면 헐박과 구타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포로들이 너희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게 될 거라고 배웠다.

- 한국인 BC급 전범 이학래 회고록

1942년 8월 19일, 마침내 적도의 땅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조선 전역에서 모집된 3,224명과 함께 부산에서 훈련을 받은 포로



말레이시아 포로수용소 감시원 김영도

감시원을 태운 배는 베트남으로 이동한 뒤 1차로 타 이 포로수용소에 배치되었다. 이후 자바를 거쳐 말레이 포로수용소에 배치되었다. 영도는 조선인과 함께 말레이 수용소에 배치되었다. 필리핀과 보르네오 포로수용소 감시원은 대만인을 배치했다.

포로수용소에서의 감시원의 삶은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이었다.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 중철과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 살면서 영도는 그리움에 사무쳤다.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괴로웠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다 토해내는 그 냄새마저 좋으려면, 이역만리 떨어져 살며 그리움만 한없이 커져 갈 수밖에 없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적도의 땅,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수 있겠지. 가족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은 적도의 하늘을 사무치듯 맴돌았다.

## 비밀결사단 조직 활동

조선인 포로 감시원의 주 임무는 포로 호송, 작업감시, 포로와 원주민들과의 교류 차단 등 최 말단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들의 직속상관이 일본군 최하위 계급들인 이등병, 일등병이었을 정도로 열악한 대우 속에 업무를 수행했다.

자바섬 조선인 포로감시원은 1400여 명에 달했다. 이중 조선인 청년 10여 명은 1944년 12월 29일 항일운동단체인 <고려독립청년당>이라는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했다.

“우리는 선열의 위업을 거울삼아 조국 독립의 선봉이 되어 일심동체 결사 투쟁할 것을 자바섬 스모노 산중에서 엄숙히 선언하노라.”

— 고려독립청년당 창립선언문

한편, 말레이시아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파견 배치된 김영도는 고향 대술에서 함께 온 김호식(金浩植)과 생사고락을 하며 부대 생활을 했다.

1944년부터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군의 패망의 그림자는 짙어만 갔다.



김호식(金浩植, 1921~1994)

진주만 공격을 받은 후 미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맥아더 장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미드웨이 해전(1942.6)에서 대승을 거두어 제해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했고, 1943년 2월, 솔로몬 군도의 과달카날 군도에서의 승리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로부터 일본군의 보급 체계가 붕괴되면서 물자가 부족하게 되어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되었다. 병사들의 무단이탈, 탈영, 명령 불복종, 심지어 상관폭행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본군의 보급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이나 특정 부대나 주둔지 등 특수한 곳에서만 정상적이었고, 전장 등 나머지 장소에서는 기본적인 보급 상태마저 열악했다. 군인들이 점령지의 식량만 약탈한 게 아니라 땀감으로 쓰러고 멀쩡한 문짝이나 가구 같은 것도 거뒀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탈을 했고, 이는 점령지의 사람들에게 반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군은 약탈만 한 게 아니라 미군에게 협력했다는 죄목이나 기타 대단하지 않은 명목으로 수시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혐의자가 1명만 있어도 해당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식으로 잔혹한 지배 정책을 폈다. 이에 반항하여 태평양전쟁 전역에 걸쳐 미군과 협력하는 수많은 게릴라가 나오게 되었다.

일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수백만에 달하는 병력을 모았다. 그 많은 병사의 유지·관리도 쉽지 않은 데다가 연합군의 공격으로 보급마저 끊기자 태평양 등지에서는 몇 달을 굶은 병사들이 늘어났다.

휘영청 밝은 달은 영도가 있는 초소를 환하게 비추었다. 정겨운 고향 보름달처럼 느껴졌다. 영도는 굶주림 속에서도 그리운 고향집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 자나 깨나 자식 걱정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큰딸 연식, 아들 중철, 막내딸 예쁜이 연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름달 속에 그려볼 뿐이었다.



광주보훈병원에 요양 중인 고려독립청년당 출신 이상문(94, 전 구례군수) 선생을 뵙고 활동내용을 들었다. 이상문 씨는 해방 이후 암바라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한 한국인은 필자가 최초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무심함을 질타했다(2014. 8. 9.)

#### ※이상문(李相汶, 1920~2016)

이상문은 일제 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의 산 증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포로감시원으로 일하며, 1944년 12월 자바에서 결성됐던 비밀단체인 <고려독립청년당> 맹원으로 항일운동을 했다. 그는 1945년 1월 자바에서 일본 군인군속 12명을 사살하고 일본 군 대치하다가 자살한 사건인 <암바라와 의거>로 비밀조직이 드러나게 되어 붙잡혀 45년 7월 21일 군법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방 후 구례군수까지 역임한 그는 자신의 활동을 국가보훈처에 16차례 올려 보훈신청을 했지만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암바라 사건>의 실체를 증명해 줄 유력한 증거가 2014년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밝혀져 이상문 씨의 독립운동이 보훈처로부터 인정되었다.

## ※고려독립청년당(高麗獨立青年黨)

스모워노 교육대에서 재훈련을 받던 한인 군속들은 이곳 교육대 취사장 뒤편에서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하여 일본군의 패전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활은 교육대에 도착 즉시 한인 군속들과 개별 접촉을 갖기 시작하였고 김현재(金賢宰)임헌근(林獻謹)도 공작에 협조하였다. 자카르타지구에 문학선(文鶴先), 세마랑지구에 이상문(李相文), 암바라와지구에 손양섭(孫亮燮)조규홍(曹奎洪), 반둥지구에 이활 등 9명은 매일같이 접촉을 꾀하였다. 이활-김현재-임헌근 세 명은 조직명-조직체제-인원구성-강령-선언문 등을 토의 연구하였다. 조직명은 <고려독립청년당(高麗獨立青年黨)>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강령-선언문-당가까지 이활이 손수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아세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하는 폭탄아가 되라.
2. 만방에 우리의 진의를 소통하고 유대할 수 있는 최단의 길을 가라.
3. 민족을 위함이고 조국에 이로운 행동이면 결코 주저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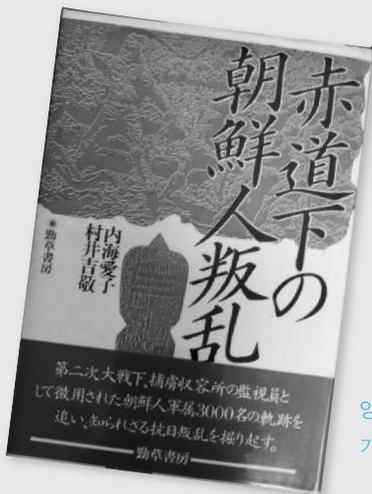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고려독립청년당원들도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석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8월 26일 자비일본군 군정감부 선전부장이 구치 중인 고려독립청년당 당원들을 군 구금소로 찾아왔다. 허영이라는 일본영화계 출신의 알선으로 당원들과 일본군 장교(주로 법무부)의 간담회가 열렸다. 2회에 걸친 면담 후 검찰관이 얻은 결론은 당원들을 석방해도 별다른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일본군 괴창[鬼倉] 대위와 허영 사이에 개인적 논의가 오고 갔다. 그 결과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와 같은 단체를 조직한다면 일본군은 적극 협력하여 구금 중인 당원들을 그런 단체에 신병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은 무산되고, 연합군에게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일본군으로 취급받아 대다수 회원들은 1946년에 전범재판에 넘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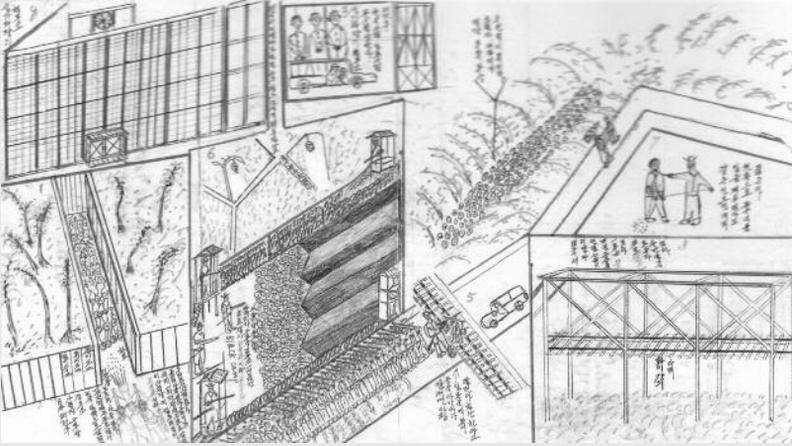
## 고려독립청년당의 구형 및 언도 형량

본적	성명	창씨명	적용법	구형	언도	비고
서울	李活(李億觀)	公山豊三	치안유지법위반제1조	12년	10년	
전남	金賢宰	神石賢宰	상동	8년	8년 6개월	
충북	林獻謹	林正雄	상동	10년	8년	
전남	李相汶	松岡穎治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강원	曹奎洪	葉山奎洪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황해	文鶴先	文岩鶴先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전남	白門騏	白川登龍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충북	朴昶遠	新井昶遠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황해	吳殷錫	桑田殷錫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충남	池周成	池上周成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충남	朴承郁	井上雨而人	상동	2년	3년 집행유예	기소유예
황해	申曠喆	道川曠喆	상동	8년	7년	결석재판

자료 : 『高麗獨立靑年黨運動史(草案)』 독립기념관



양심적인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고려독립청년당의 실체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김영도와 함께 모집되어 입대한 전남 장성 출신 오행석이 해방 후 포로수용소를 묘사한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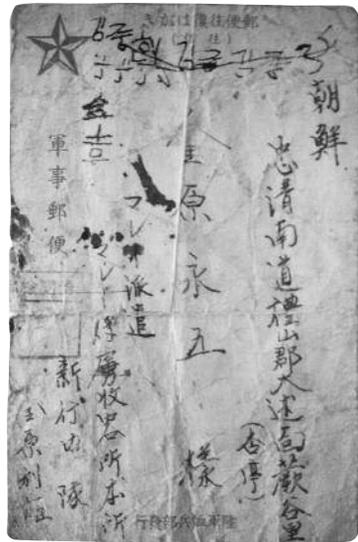
### ※오행석(1919년 2월생)

태국으로 이동해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1957)' 영화 소재지에서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고 가혹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 기록화에는 영양부족과 말라리아로 죽은 수많은 포로들의 시신과 아무 이유 없이 일본 군인에게 목이 잘린 중국인, 건설현장의 포로 처형과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들을 최전방으로 인솔해 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임시 막사를 만들어 위안시설로 쓰던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행석은 패전 후 포로학대 혐의로 전범으로 몰렸다. 다행히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3년간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강제 저축한 돈마저 지급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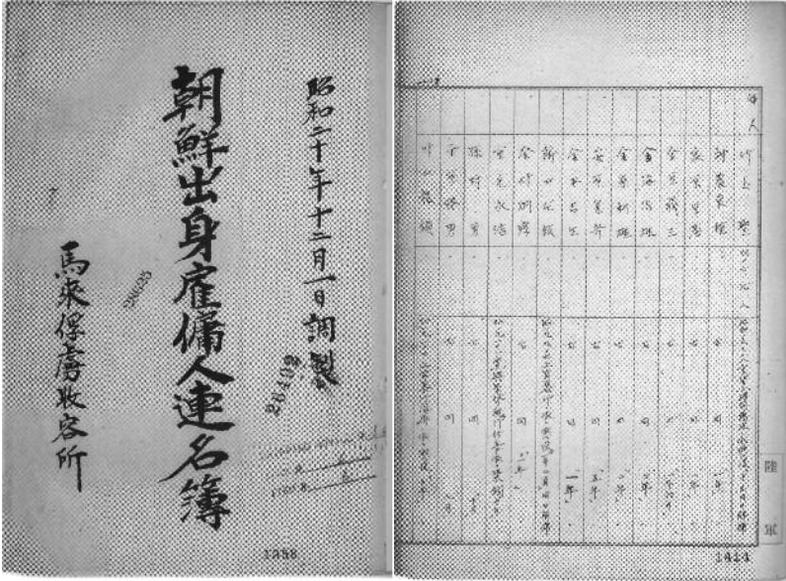
- 민족문제연구소 회보 <민족사랑> 2016. 12



김영도가 말레이시아 포루수용소 본소에서 아버지(김은선) 생신 3일 후 다시 형님 영오에게 보낸 엽서 편지글. 이 글에는 가족을 보고 싶어 부모님 사진 각각 1장씩, 부인과 삼남매 찍은 가족사진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43년 12월 말경 추정)



말레이시아 포루수용소에서 형님에게 보낸 군사우편. 행정감습소 개설할 때 박00씨에게 빌린 돈이 남아 있으니 대신 형님이 갚아달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말레이시아포르수용소 파견, 부산 주둔 일본군 「조선출신고용인연명부」에 수록된 김영도 와 비밀 결사대원(1945년 12월 일 작성).

이 자료는 1942년 9월 8일부터 1945년 8월 25일 기간 동안 일본군이 관리하던 말레이포르수용소에 고용되었던 조선인 군속들의 전입 및 이동 상황을 기록한 자료이다. 작성일자로 미루어보건대, 종전 이후 일본군 전범 재판을 위해서 작성 제출된 자료로 보인다.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의 죄명으로 인해 징역 2년을 언도 받은 김영도와 나머지 비밀결사단원 7인 모두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신분(월급)	성명	편입연월일	사과의 사유
용인	竹山聖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10월, 동일 해용
용인	神農東植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1년, 동일 해용
용인	泉原學基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1년, 동일 해용
용인	金原鼎三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1년 6월, 동일 해용
용인	金海信雄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2년, 동일 해용
용인	金原利雄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2년, 동일 해용
용인	安原晃秀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5년, 동일 해용
용인	金本吉生	1942.9.8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절도로 인해 징역 1년, 동일 해용
용인	新井在鉉	1942.9.8	1944년 9월 27일 상관독행으로 인해 징역 1년 2월, 동일 해용
용인	金村炯淳	1942.9.8	1944년 9월 27일 상관독행으로 인해 징역 1년, 동일 해용
용인	重光永浩	1942.9.8	1944년 12월 1일 당여 군무집행 방해로 인해 금고 10월, 동일 해용
용인	孫村勇	1942.9.8	1944년 12월 1일 당여 군무집행 방해로 인해 금고 10월, 동일 해용
용인	千原勝男	1942.9.8	1944년 12월 1일 당여 군무집행 방해로 인해 금고 8월, 동일 해용
용인	竹山龍鎮	1942.9.8	1944년 12월 4일 상관독행모욕으로 인해 징역 2년, 동일 해용

그리운 얼굴들  
포로수용소 담장 아래  
햇살 가득 담아 피어난 매화꽃  
꽃잎에 드러진 우리 가족 모습  
꽃향기는 철창 넘어 흐르고  
새들의 노래 소리에 맞춰  
온 가족 즐거운 함박웃음 소리  
동네 마실 갔다 돌아오신 아버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전쟁 미치광이 왜놈들 철전지 원수로다'  
넵다 욱 한마디 퍼부으시며  
봉지 켄련초 두툼 꺼내 입술 침 발라  
호롱불에 붙여 빼금빼금  
방안에 자욱한 연기

어머니는 밤새 명주실 짜느라  
고단함 물리치고 철컹 철컹  
새끼들 입힐 명주 옷감  
한폭 두폭 쌓일 때마다  
어머니 입가엔 풍성한 미소

옹알거렸던 막내딸 연자  
젓 달라고 으앙으앙  
큰딸 품에 안겨  
토닥토닥 자장가 소리  
고향 밤하늘 깊어만 간다.

영도는 고국의 형님에게 엽서를 썼다. 그리운 가족 얼굴 그리며 초소한 백열등 불빛 아래 촌촌히 써 내렸다. 보급품 중단으로 감시원과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의 처우는 날로 악화됐다.

일본군의 패색이 짙어가는 것을 느낀 영도는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포로수용소 내에서 평소 뜻이 잘 맞았던 동지 7명을 규합해 1943년 말경 비밀결사 단체를 조직했다. 수용소 내에서 본격적인 비밀 항일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들은 굶주리는 조선 청년들에게 비밀리 나눠줄 식량 및 보급품을 몰래 탈취하는 일을 했다. 또한 영도는 밤이면 악질 일본군 상관을 불러내 감쪽같이 처단하는 일을 수행했다. 시신은 해안가 모래사장에 묻어 흔적을 없앴다. 조선 침략의 원수를 갚는 의로운 독립활동이었다.

영도의 신출귀몰한 활동이 계속되는데 11살 낮은 대술 상항리 출신 고향 후배 김호식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그는 수원김씨 집안 조카뻘 된다. 호식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또다시 나서는 영도 아저씨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이제 더는 당 활동하지 마세요. 발각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걱정 말게 조카님, 일본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네.”

“하지만, 지금 경계가 너무 심해 위험합니다.”

“내가 뽑은 이 칼은 내 일신의 쾌락을 위해 뽑은 칼이 아닐세. 조국과 민족의 대의를 위함일세. 내가 죽어야 하는 인물들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빼앗고 세계평화를 짓밟고 있는 전쟁미치광이 일본군일세. 세계 인류에 가장 큰 범죄를 짓고 더럽힌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두고 볼 수 없네. 나는 내 손으로 왜놈들을 쳐부수고 싶네.”

“하지만, 조국독립을 위한다 해도 목숨을 거는 일은 없어야 우리가 살

아 남아요.”

그러나 영도는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눈은 작열하는 적도의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굶주려 죽어가는 조선인 감시원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3월 초, 비밀결사단원들은 보급품을 탈취하다 결국 일본군 보초병에게 들켜 체포되고 말았다. 단원들은 싱가포르 남방사령부로 압송돼 모진 고문과 구타를 받았다.

“이 조센진 새끼들, 감히 천황폐하의 은덕을 모르고 불충을 저질러!”

일본군 헌병 취조반장은 고향을 지르며 군화발을 사정없이 내질렀다. 말이 취조실이지 살벌한 고문실이었다. 이윽고 단원 한 명씩 취조실 안쪽 문으로 끌고 가 소위 공중전이라는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 영도의 몸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다.

“이 새끼, 누구와 작당했어?”

“아악!”

피부가 터지고 심하게는 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인간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고문은 한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취조실에 남아 있는 것은 오직 고통의 세계뿐이었다.

고문을 받은 영도와 단원들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언어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

“으윽!”

그러나 단원들은 보급품 탈취만 인정할 뿐 전에 활동했던 암살과 탈취활동은 자백하지 않아 다행히 총살을 면했다. 나이가 그중 많은 영도는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바섬 포로수용소에서도 비밀 결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조선인 군무원들과 연합군 포로들에

게 말레이 방면으로 전속명령을 하달하자 거사를 감행할 유동적 조건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자바섬 암바라와군에 위치한 포로수용소 분소에서 패망하던 해 1월 4일 거사를 일으켰다. 수송트럭을 탈취한 후 포로수용소 소장과 일본인 무기상인, 군무원 등 12명을 사살하는 의거였다.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포로수용소 곳곳에 배치된 조선인 군속 3,223명의 조직력은 남방을 경영하던 일본 16군도 두려워하는 세력으로 커져 있었다.

# 우리 힘으로 적도의 땅에도 해방을 이루자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 지 30년이 넘어  
조국은 전시체제 아래 시름하는 백성들  
몸은 비록 이역만리 적도 땅  
지켜보고만 있던 말인가  
나라를 위한 의리로서 죽는 것은  
우리 결사단원의 소원이자 떳떳함이다  
한 번의 죽음은 조국독립의 길  
어찌 슬픔이 있으리오  
생전에 그리운 고향 땅, 어머니 얼굴  
뵈지 못함이 한심스러울 뿐  
충훈, 의혼으로 뭉친 우리의 결의 깃발,  
빼앗긴 대한의 주권, 다시 찾아 나서  
누가 막을 수 있으리오

8·15해방이 한참 지나 9월 하순경, 영도가 복역하는 싱가포르 남방사령부 형무소에도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군이 무장해제되자 영도는 다른 조선 청년들과 함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감옥살이 하던 조선 청년들은 대부분 학질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인 열대 말라

리아에 감염돼 심한 몸서림, 두통, 황달 증세를 겪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바깥세상도 감옥이었고 형무소 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그러나 감옥은 영도를 비롯한 조선 청년들에게는 항일독립투쟁 의지의 분출구였고, 일본군을 응징하려는 강렬한 눈빛만큼은 매섭게 빛난다. 분노한 조선청년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영도는 비밀결사단원들과 긴밀히 이야기를 나눴다. 단원들은 강열한 영도의 눈빛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조국이 해방되었다 해도 이곳은 아직도 왜놈들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소. 이제 우리 힘으로 이곳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거사를 준비해서 사흘 후 오전 10시 왜놈들을 몰아냅시다. 동지들의 생각은 어떻소?”

“좋소, 해방이 된 이 마당에 뭐가 두렵겠소. 작전을 차질 없이 추진합시다.”

단원들은 비장한 눈빛을 서로 마주보며 결의를 다졌다. 우선, 전투 태세를 갖추고 비밀리에 무기를 확보한 후 미군포로가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한 작전을 세웠다.

마침내 해방 전투가 시작되었다. 일본군 장교들은 기습을 받고 비상령을 내렸다. 중앙 감시초소로 올라가 방어전을 구축하고 접근하는 조선인 단원들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다. 영도는 단원 3명을 이끌고 25m 거리, 우측창고 벽까지 질주하며 쏟아지는 총알을 피했다. 1차 거점을 확보한 것이다. 부대 내 총격전은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다음은 중앙현관으로 뚫고 들어가 건물 양 측면에서 중앙감시초소를 공격해 왜놈들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두 명씩 나눠 양쪽 계단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2층을 무사히 통과하던 중 앞장섰던 영도는 일본군의 흉탄을 맞고 넓은 평 계단에 쓰러지고 말았다. 뒤 따르던 단원 한 명은 재빠르게 엎드려 영도를 끌어안고 2층 출입구 문을 열고 피했다. 단원의 손에는 뜨

거운 영도의 붉은 선혈이 묻어났다.

우측가슴 관총상을 입었다. 영도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거친 숨을 내쉴 뿐 움직임이 없었다. 출혈을 막는 응급조치를 한 후 선발대 단원들은 삶과 죽음을 잇은 채 일본군 감시초소를 맹렬히 공격했다. 같은 군복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가 죽어야만 하는 미군포로수용소의 참혹한 사투는 결국 비밀결사단원의 승리로 끝났다. 마침내 이곳 적도의 땅에 진정한 해방이 온 것이다. 단원들은 급히 영도를 부대 내 진료소로 옮겨 1차 응급처치를 하였다. 그러나 총상이 워낙 깊어 남방육군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다.

그 시각, 궤곡리 그리운 고향집 들녘은 비가 누렇게 익어 추수하느라 분주하였다.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영도의 부모님은 이역만리 아들의 소식을 통 알 수 없었다.

10월 23일, 남방육군병원 병상에 누운 영도의 가냘픈 숨은 마지막 물이 숨소리를 내고 멎었다. 눈물이 맺힌 듯도 한 영도의 얼굴, 살아남은 단원들의 슬픔은 바다를 이뤘다. 고향집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가을걷이에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 제3장



해  
방  
그  
이  
후

## 해방,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김영도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문서를 라디오를 통해 발표했다. 느닷없이 찾아온 해방이었다.

‘대한민국 만세’ 목 놓아 외치는 온 백성들의 환희에 찬 함성이 삼천리 방방곡곡 메아리쳤다. 대술면에서도 마을마다 풍물을 치며 오랜 일제식민지 압제에서 벗어난 감격을 맘껏 누렸다. 바람을 타고 풍물 소리가 대술면 원동, 고새울 산골에 울려 퍼졌다. 강제징용 갔던 사람들이 속속 그리운 고향에 돌아오느라 예산 기차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영도 아버지도 매일매일을 예산 기차역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기차에서 내리는 깡마른 물골의 강제징용자들을 영도가 아닌가 하여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영도의 부인 이예순은 틈만 나면 대지동 남녘 길을 내려다보았다. 두뼉두뼉 걸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리운 남편은 나타나지 않고 소깥(소먹이풀) 한 짐 지고 오는 마을 지게꾼 모습뿐이었다. 길가 한쪽 한 길이 넘게 큰 수숫대가 남편 영도의 흰칠한 키를 닮은 듯 바람에 하늘거렸다.

남편이 떠나기 전 그토록 아끼고 위했던 황새 우리에선 새로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다. 예순은 ‘황새가 길조라는데, 황새 새끼도 알을 깨고 나왔으니 남편 영도가 곧 오려나’ 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미새는 원동 습지에서 미꾸라지를 물어다 주었다. 새끼가 커서 날

갯갯하며 이소를 위해 새 둥지가 필요해도 걱정이 없었다. 국사봉 자락은 하늘 높이 치솟은 조선소나무가 서로 경쟁하듯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이었다.

예순은 집 뒤 황새 부부도 해방의 느낌을 알까마는 제 새끼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였다. 숲속 작은 생명들도 숲이 베푸는 연희에서 하루도 떨어져 살지 않고 즐기는데 남편 영도는 어이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 튼튼하고 날렵했던 남편이 적도의 땅에 미련이 남아서 못 오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면 그곳은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 중인가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뜨는 해도 다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습니다.

올 때가 지났는데.

산 자들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미군 함정에 돌진하던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집안 동생뻘 되는 상항리 김영후도

출격 이틀 전 해방되어

못 볼 줄 알았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기쁜 소식 전한다는 어미 까치

둥지 속 노란 쪽입 내민 어린 새끼들

아침마다 먹이 물고 신바람 나듯 까악까악

아들 오는가 하염없이

오늘도 동천삼거리 갔다가

고개 숙이며 그냥 돌아오시는  
시아버님의 빈 발걸음

해방의 감격도 잠시  
아들 소식에 쪽 처진 어깨  
나는 살아 있지만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기다림이 부족해서인가  
천년을 산다고 해도  
아득한 세월일지라도  
뒷산 황새 가족 등지 소나무  
비바람에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듯  
당신을 기다립니다.  
가장자리에 고인 눈물  
무명 삼베 저고리 적셔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가족을 사랑하고  
따뜻하고 비범했던 당신  
적도의 바다 건너오는 길  
삼계를 주재하시는 천지신명께  
교란피우지 말고 암전히 있으라고  
달빛 드리운 장독대 맑은 청수 그릇  
두 손 모아 님 그리며  
무사생활 비나이다

마르지 않는 눈물 흘러도  
생명을 살리는 눈물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는 세상을 초탈한 듯 길쌈하느라 밤을 지새웠다. 육체의 피곤함보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아픈 고통이었다. 남편을 그리워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고요한 밤 길쌈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남편이 징집되어 떠나고 난 뒤 힘들었던 삶에 마음을 스쳤다. 남편이 없는 가정에서 생활방도가 없어 어찌는 수가 없었다. 농사일은 여성의 몸으로 견디기 힘들만큼 힘에 부쳤으나 피곤한 내색 없이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했다. 어린자식 셋을 키우는데도 ‘애비 없이 큰 자식들’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바르게 키우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다. 예수는 맏딸이라도 빨리 커서 집안일을 돌봐주길 바랐다.

원동 천년 은행나무 아래에 어스름이 내린 밝은 여름 밤이면 돛자리를 깔아 놓고 징글맞았던 왜놈 세상 겪었던 이야기가 꽃피었다. 누구 아버지는 징용에 끌려가 일본 탄광에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며 원자폭탄의 위력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돛자리에는 감자, 옥수수, 빈대떡 등 단출한 음식이 놓여졌다. 누군가 낮에 대술양조장에서 받아들 막걸리가 한 순배 돌면 마을 이장은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며 회상하듯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고운봉의 최대 히트곡 ‘선창’을 불렀다. 몸서리쳐지게 힘들었던 시간을 지내고 동네사람들은 너나 구별 없이 모여앉아 여름 밤 풍경을 펼쳤다.

처서가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다. 일제치하에서도 간간이 편지소식을 보내왔는데 해방된 조국에 김영도는 돌아오지 않았다. 영도의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들에게도 한가위는 찾아왔다. 영도의 집 앞 동쪽 하늘에

는 초저녁 보름달이 천방산 산등성이 위로 떠올랐다. 활짝 핀 해바라기와 빛이 바래가는 깃잎 뒷밭 모서리에서 붉은 꽃술이 빛나는 맨드라미가 안락산 계곡을 타고 내려온 산들바람에 무심히 흔들렸다.

영도가 이역만리 땅에서 죽었다면 그를 위해 정성스레 차례 상이라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영도의 부친은 ‘돈 장만해서 꼭 돌아오겠다’던 아들이 금방이라도 둥근 달님처럼 웃음을 내밀며 올 것만 같았다. 영도의 부친은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 맞는 추석인데 차마 아들을 망자로 여기고 제사 상을 차릴 수는 없었다.

“영도가 죽진 않았을 게다. 반드시 올 거다. 나쁜 녀석.”

향불을 피우고 조상님을 위한 술잔을 올리며 차례 상 앞에서 슬픈 심정을 토해냈다.

“내 가슴에 그렇게 큰 구멍 하나 뚫어놓고 돌아오지 않다니...”

그저 원망 섞여 자식의 무사귀환을 빌었다.

원동 입구길을 달려와 가슴에 안길 것만 같은 남편의 모습은,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일까. 추석을 맞이하는 예수는 더욱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온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송편 빚던 그날들, 사랑이 탐스럽게 익어가던 즐거운 명절의 기억도 이제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하는가 하는 애처러움이 가슴에 쌓였다. 남편이 돌아왔으면 적도의 땅에서 겪었던 체험을 특유의 입담으로 밤새도록 이야기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부인과 꽃망을 같은 어린 자식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아버지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영도의 무소식에 해방후 처음 맞는 명절이지만 가족들을 비추는 한가위 보름달은 텅빈 가슴으로 졌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더욱 가슴 시리게 하는 추석이었다.

적도의 꽃처럼

고새울 안락산 단풍은 유난히 붉은데

반겨줄 사람 오지 않아

금세 검붉은 마른 잎 되어

늦가을 골바람 맞아 떨어져

산제당 골짜기에 쌓이네

아이 적 영도의 옛 놀이터

국사봉 기슭 왕솔밭 사이

원추리는 함박웃음 웃는데

꽃술 사랑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

꽃잎 떨구어 짝을 잃고

태봉 냇가 물에 떨어지네

가족들은 해방을 맞아 날아오를듯 풍성해야 할 추석을 영도 없이 우울하게 보냈다. 별안간 찾아온 쌀쌀한 늦가을은 더 쓸쓸했고 맥 빠진 기력으로 마지막 가을걷이를 한줌씩 걷어 올렸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예산은 영하6도였다. 해방된 그해, 1945년의 첫눈은 12월 1일에 내렸다. 이날 첫눈은 예산뿐만 아니라 경북 이북의 전 지역에 내렸고, 감상에 젖은 마을사람들은 쏟아지는 함박눈을 보며 말했다.

“얼씨구 내년 농사는 틀림없이 풍년들 걸세.”

“때를 알아 내리니 복눈이요, 좋은 눈이네 그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다. 마을을 포근히 감싸안은 안락산

줄기는 온통 하얗게 뒤덮였다. 고요하고 아늑한 설경 자체였다. 배고픈 멧돼지, 삿, 고라니 등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닭을 잡아가고 다 키운 염소새끼도 잡아갔다.

을유년, 그해 말 모스크바에서 북풍(北風)이 불기 전까지는 첫눈의 기쁨은 계속되었다. 1945년 12월은 현대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결정적 시기였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이 모여 전후 회의를 개최했다. 의제는 2차대전 후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와 조선의 독립 문제였다. 3상회의에서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이른바 ‘모스크바3상회의결정’ 이란 말로 ‘신탁통치 결정’이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의 정반대 기사로 한반도에서는 찬탁 대 반탁의 전선이 구축되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좌우대립이 노골화하는 순간이었다.

12월 첫눈이 내린 이날 마침 서울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행사가 있어 거리마다 태극기 물결과 만세소리가 진동하고 있었다. 신탁통치 찬·반 갈등은 좌우대립으로 격화되어 유혈충돌이 발생할 만큼 중대한 시국사건이었다. 그 여파는 이듬해 예산지역에도 전해져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 기다림은 황새가 되어

영도의 부친 김은선(金殷善, 1878~1947)은 기우(基禹)와 남양홍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덕경(德卿)이며 청송심씨 의식(義植)의 딸과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영도는 차남이다. 김은선은 벼슬은 하지 않았으나 수원김씨 집성촌에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김 처사(金處士)’라 불렀다.

해방 이듬해 봄 어느 날 긴장한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다. 청년은 김 영도와 함께 말레이시아 미군포로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눈치였으나 가족들이 있어 못 하다가 밖으로 나가 김은선에게 조용히 영도의 부보(訃報)를 전했다.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접한 부친은 망연자실하였다. 날마다 대문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며느리에게 “별일 없을 게다”며 위안과 희망을 주었는데 죽음이라니 어찌면 종단 말인가. 며느리에게 도저히 죽음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 혼자만 알고 있어야 했다. 영도의 부친은 이때부터 삶의 의욕을 잃고 기력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손자 중철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지만 훈화 열정은 생기를 잃은 듯 이역만리에서 죽은 자식의 얼굴이 떠올라 손자 얼굴을 볼 때마다 슬픔과 울분을 삼켜야 했다. 자식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으랴. 어린 중철은 할아버지의 비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물을 알지 못했다.



영도의 부친 김은선 처사. 황새연구가 박시룡 박사가 그린 영정(2017 작)

던 중철은 마음만 몽클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할아버지가 집 뒷산 소나무 기둥을 잡고 눈물을 쏟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다.

나라 안팎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립과 혼란이 계속되었으나 농촌 들녘은 평온하였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풀들이 갈색 옷으로 갈아입고 선선해진 바람에 서걱거리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김은선의 애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해방 된 지

2년이 지난 1947년 2월 12일 통한을 남긴 채 세상을 떠다. 손자 김중철(金中哲, 1939~)이 9살 때였다.

누구도 세월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고 비통하게 살다가, 할아버지로서 몫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긋이 감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식 유해도 찾지 못하고 홀로 된 며느리와 어린 손주를 남겨둔 채 가야만 했으니 비통한 마음 어찌 달랠 수 있을까.

“할아버지 가지지 마세요.”

“저와 함께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고 오로지 할아버지의 사랑만을 받고 자란 손자 중철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럽게 울었다. 그의 슬픈 눈물은 마을 사

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애절한 곡소리가 3일장 내내 그칠 수 없었다. 장지를 향해 삭풍을 뚫고 떠나는 그의 상여 행렬은 이승의 고통을 떨치지 못한 애잔하고 슬픈 광경이었다. 그가 떠난 2월, 아직 따스한 봄기운이 피어오르지 못해 동토는 얼어붙었고 매서운 칼바람이 콧등을 시리게 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뿐, 민족분단과 좌우갈등이 날로 격화되어 나라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혼란기였다.

김영도의 부인 이예순은 갑작스런 시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어린 자식 4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고, 이십년이 넘게 시어머니 봉양까지 해야 했으니 그 고충은 이루 말로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 험난한 세월은 그리운 남편 김영도의 죽음을 모르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기다림의 세월이었다.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 이예순의 목이 메는 슬픔은 집 앞 습지 여울물에 젖어들었다. 울어도 불러도 남편 목소리 없는 메아리뿐, 여름날 무더위 속 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만 선명하게 돌아올 뿐이었다. 예순은 집 서편 왕소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낙락장송에 서식하는 황새를 돌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얼마나 긴 세월이었기에  
지난 세월이라 부르랴  
어린 아들 중철을 보니  
사실, 몇 해 밖에 앓되었지요

비록 혹독한 왜놈치하였지만  
뜻 맞는 사람을 만나

청사초롱 불 밝히고  
사랑의 속삭임 깊어만 갔지요

따뜻한 남방열도 간 내님  
강남에서 사랑 가득 담아  
작년에도 왔던 제비에게  
춤춤히 쓴 옆서 한 장 띄워  
대문간 기둥에 걸린 편지함  
님의 소식 한 아름

부부인연은 질긴 것  
끊어질 줄 모르는  
단단한 사랑의 옥줄이라 하던데  
금새 허리 잘린 조국이라서  
못 오는 님이신지요  
홀로 문밖 서성이는 애담픈 이내몸  
흐르는 눈망을 속에 박힌 님의 모습  
서려운 내 마음에 가득 떨어지고  
늦가을 밤 무서리 내리네

시간은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황새와 함께하는 시간은 한 여인이 기구한 자신의 삶을 잊기 위한 한맺힌 몸부림이었다. 등지를 오가는 암수 황새의 날갯짓은 돌아오지 못한 그리운 남편 영도와의 사랑이었다.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 다시 보움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아라리오  
아리랑 강남을 어어서나 가세에……”

인생의 고락은 돌고 돌면서 삶이 진행되고, 화복(禍福)도 고락(苦樂)처럼 뿌리와 씨앗으로 연결되면서 한평생이 지나간다. ‘모진 고난 뒤에는 달콤한 행복이 온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 영도를 기다리는 이예순에겐 모진 세월일 뿐이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이예순은 회갑을 맞이했다. 잠시 괴로움과 자신의 박복한 운명을 잊어버리고 ‘만수무강’을 바라며 자식, 손자가 올리는 절을 받으며 회갑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짓누르는 설움과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예순은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애써 잊고 회갑잔치를 기쁘게 받으려 했으나 마음은 역시 외롭고 괴로웠다. 남편 없이 살아야 했던 모진 삶은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들이 살아온 아픔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예순의 삶을 알고 있는 자식들과 일가친척들은 혼자몸으로 자식을 잘 키워낸 자랑스런 이예순 여사의 환갑을 축하하며 맘껏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운 남편 김영도의 죽음을 모르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부인 이예순 여사가 2013년 7월 숨을 거두었다. 장롱 속에는 생전에 그가 손수 지어 평생 간직한 남편 김영도의 두루마기 한 벌과 바지저고리 일곱 벌이 단정히 놓여 있었다.



김영도 집 뒷산 자락에 있는 궤곡리 황새번식지 비석(왼쪽:1973년 대한민국정부에서 세움, 오른쪽:1930년경 조선총독부에서 세움). 대술천과 근접한 대술면 궤곡리 원동마을 영도의 집 옆에는 고새

울 천이 흘러 넓은 자연습지가 형성돼 먹잇감이 풍부한 자연서식환경을 이루고 있다. 뒷산에는 수령 3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가 뺨뺨한 숲을 이루었다. 이 나무는 한국전쟁 때 까지 우리 텃새인 황새가 동지를 틀고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세워진 황새서식지 표지석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운 비석이 지금도 나란히 서있다.



황새서식을 지켜보며 살아 온 이예순 여사 (2009년 촬영, 당시98세)



이여순 여사 회갑사진(1974년)



일가친척과 함께 찍은 이여순 여사 회갑기념 사진

## 감시와 보상신청 통지서

적도의 땅에서 독립을 위해 산화한 김영도의 죽음은 그동안 대한민국이란 주권국가로부터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보호는커녕 해방 후 분단과 좌우익 갈등 속에서 '혹시 북으로 간 인물'로 간주돼 꺾곡리 고향집은 주기적으로 예산경찰서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국가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가족이란 누명을 벗기까지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1973년 군사정권의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에 대한 보상신청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전쟁 피난민 출신으로 대술지서 소속 이재화 순경은 가끔 김중철 집에 와서 아버지 소식을 묻곤 했다.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그 때마다 어린 중철은 무서워서 숨었다. 동네 어른들 말씀에 일제강점기 순사한테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경 옷차림만 봐도 몸이 굳어졌다.

“요즘 아버지한테 편지 온 것 없니?”

“없어요.”

“무슨 소식이라도 오면 알려야 한다. 알았지?”

중철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경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아무런 기억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애써 연상했다. 그러나 얼굴 없는 허공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

는 걱정뿐이었다.

나라꼴도 점점 격동의 거친 물살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나라가 편안해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했던 생전의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다. 남한 단독 선거로 집권한 이승만은 식민지배 청산을 위해 설치한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첫단추를 잘못 꿴 순간이었다. 전쟁과 이승만의 독재를 겪으면서 민중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권력은 더욱 추악하게 부패했다.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민주혁명 소식이 라디오로 전해왔다. 나라는 나라다운 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제가 출범(1960)했다. 독재 잔재의 청산을 내세웠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왜정 때 막지 못한 예당저수지 공사도 착수하기 시작했다. 민주문화의 배양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나라는 다시 민중이 원하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권력자 마음대로 흘러갔다.

5·16 군사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통치가 시작되었다. 제2공화국은 와해되고 군인들이 세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삼권을 장악해 3년여 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하였다. 정권을 찬탈한 군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장기 집권욕을 드러냈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2기인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헌정 중단을 통해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에 의해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재야 및 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더욱 치열해졌다.

한일청구권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징용자 명단을 줬다. 징용피해자

유해를 주면서 징용자 명부를 준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향후 몇 년간 그걸 공개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단체를 결성해 보상 요구를 하였고 한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온 유가족들은 혹시나 살아서 오려나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계속 명단 공개를 미루다가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얻고자 1973년 강제징용 피해자 명단 공개와 함께 피해 접수를 한답시고 가족에게 통보했다.

영도의 고향집에도 1973년 어느 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록신청을 하라는 통지문이 왔다. 통지문을 받은 중철은 대한민국 중앙 부서명이 적힌 봉투를 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중철은 조용히 뒷산 소나무 그늘로 가서는 봉투를 열고 통지문을 읽어 내려갔다. 순간, 중철은 북받쳐 오르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다. ‘김영도 남방열도에서 사망’했으니 보상신청하라는 통지문이었다. 마침내 긴 세월 참았던 통곡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요.”

“이 왜놈들,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

## 보상신청 차별과 국가의 무책임

해방 후 자식의 죽음 소식을 혼자 알고 세상을 뜨신 할아버지의 비애를 또다시 손자 중철이 겪었다. 아침에도 황새를 보며 아버지의 귀환을 빌었던 어머니께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1973년 4월 어느 날, 농사철을 맞은 중철은 밭에 두엄 내는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통지문과 구비서류를 챙겨 홍성세무서로 보상 신청하러 아침 일찍 떠났다. 어머니께는 예산을 갔다 온다고 말씀드렸다. 홍성세무서에 당도하니 첫날이라 그런지 신청자가 많아 아무 소득도 없이 되돌아 왔다. 다음날도 이른 새벽 출발하여 홍성세무서에 도착했다. 그날도 전날과 같이 신청 행렬이 줄을 이었다. 중철은 할 수 없이 아버지 이름을 찾는 게 먼저라 생각하고 대기실에 있는 열람용 사망자 명부를 확인했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이름이 명부에 있었다. ‘10권 129쪽’에 기재된 아버지 이름을 확인한 순간 중철은 울컥 눈물이 뭍돌았다.

“아아, 아버지... 돌아가시다니요.”

떡떡한 가슴에 목이 메어 긴 숨을 내쉬 후 줄을 서서 기다렸다. 마침내 중철 순서가 왔다.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은 구비서류를 넘겨받은 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지가 김영도 맞아?”

“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방 후에 돌아가셨어. 사망일자가 1945년 10월 23일이네. 그렇다면 이번 보상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네.”

중철은 맥이 빠지는 듯한 멍한 기분으로 힘없이 말했다.

“왜요?”

“이번 사망자 보상 신청은 사망기록이 1945년 8월 15일까지야. 너희 아버지는 해방 이후에 돌아가셔서 안 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사망자 명부에 이름도 있고 이렇게 통지문도 보내놓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야, 이걸 정부 방침이야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 다음 순서!”

담당직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중철은 항의도 못 하고 발길을 돌렸다. 중철은 예산 가는 충남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죽음을 이대로 접고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직 사망 소식을 모르는 어머니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비통한 마음은 가슴을 짓눌러 어지럽고 답답하기만 했다.

힘이 없어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백성을 지켜줄 수 없었지만 나라를 잘살게 만든다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 정권은 일제가 저지른 강제 징용 희생자 하나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못했다.

이 일을 겪고 난 중철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73년 4월 부산에서 ‘태평양전쟁 유족회’가 발족되었고 각 도지부가 결성되자 중철은 ‘예산군지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헌법을 유린한 유신군사독재정권이 국민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는지 짧은 기간 동안 보상신청을 마무리 하고 ‘사망자 위로금액 30만원’이 결정되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결정에 분노한 ‘태평양전쟁 유족회’는 1974년 10월 20일 서울 신

문화관에서 정부 지불 위로 금액 30만원(약19만엔)의 〈수취 거부 전국 유족 단결회〉를 개최하려다 경찰의 봉쇄로 무산되고 서울 중앙예식장으로 이동하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중철은 외쳤다.

“일제의 식민통치로 원한과 울분이 이미 골수에 사무쳤고 내 아버지를 비롯해 수많은 조선인이 죽었는데 겨우 30만원이라니! 피해자가 우리인데 민족적인 자존심도 없는가. 순국선열의 피의 외침을 벌써 망각했는가?”

“일본은 3년간 지배한 필리핀에 8억 달러의 보상을 했고, 20만 명을 전쟁에 끌려간 대만에 대해서는 49억 달러를 보상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사냥하다시피 군인 군속 노무자 정신대 등 강제징용으로 우리 국민 6백여만 명을 끌어들였다. 이 가운데 2백여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2만1천9백19명의 한국인 사망자 명단만을 제시, 청구권자금 3억달러로 보상을 일괄처리하고 말았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정치군인 출신 김종필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김-오히라 메모’에서 ‘국민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데 합의하고 무상 3억, 유상 2억을 받아왔다.”

중철은 억울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 것만 같았다. 이 금액은 1인당 보상액 30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1987년 일본이 지급한 대만인 희생자 보상금 1인당 2백만~5백만 엔에 비교할 때 그야말로 ‘피해보상금’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금액이다. 이 돈이 군사정권 유지에는 유용하게 사용됐을는지 몰라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민족이 입은 상처를 보상하는 데는 어림 반 푼 없는 액수이다. 그나마 받아온 대일 청구권 자금은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많은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목숨 값인 것인데, 그 목숨 값 주인들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일본이 진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미래 희망을 여는' 우방이 되기를 원한다면 갑오동학농민군을 무참히 살육한 행위와 식민통치 36년간의 모든 불법과 폭압, 착취, 희생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1983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처음으로 방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회견을 가졌다. 중철은 서울역 앞에서 열린 일본 총리 나카소네 방한 반대 집회에 선두로 나서 정당한 요구를 당당하게 외쳤다.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는 어떤 인물인가? 박정희 보다 한 살 아래인 1918년 5월 17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에서 태어났다. 1941년 도쿄대를 졸업하였고, 2차대전 해군 중위로 참전하여, 필리핀 보르네오 등에서 근무하면서 위안소 설치에 관여했다. 초극우파 인물로 1985년 8월 15일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를 시작해 그 이후 총리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87년 총리직 사임 후 일본 정계 막후의 막강 권력자로 군림했다. 1994년에는 일본이 전후 50주년을 맞아 전쟁범죄에 관한 사죄 결의를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다. 일본 극우파의 우두머리이다.

김영도의 유골도 찾지 못하고, 배상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한은 깊어만 갔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고통은 그대로 손자 용왕에게까지 이어졌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보다 못한 용왕은 이제는 군사독재의 시절을 벗어났으니 조금이라도 하소연을 들어줄까 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대신하여 청와대에 호소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 독자의견 난에 기고하였다.

## 日 강제징용 배상금 정부차원 요구 절실

본인의 할아버지께서는 일제 때 강제징용되어 1945년 10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戰병사(홍부육관총창)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지 올해가 50년이 되는 해인데, 유골도 찾지 못하고 배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든살이신 할머니와 57세이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처해 있어서 몇 자 적어본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배상금을 무상원조 3억달러, 유상원조 2억달러, 민간상업차관 1억달러인데, 1945년 8월 15일이전 희생자에 한해서만 배상금을 준다는 규정을 정부 마음대로 만들어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희생자는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나머지차액은 경제부흥에 이바지했다고 하지만, 배상청구 희생자 명단에 분명히 본인의 할아버지 이름과 주소와 유가족이 나와 있었대. 돌이켜보면, 협약당시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의장이던 박정희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씨는 민정으로 이양되면 이 문제가 국회에서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 빨리 매듭지으려는 의도에서 '36년 일제치하의 한'을 모두 팔아먹는 매국외교를 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일청구권문제가 이것으로 종결지어졌다고 단정해서 안된다.

한-일청구권협약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후 일본정부는 정신타와 강제징용 등의 일제란행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므로 민족협약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협약을 무효화해야 하는 것이다. 또 「人道(인도)에 反(반)하는 죄」는 국제법상 시효만료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불균형시정 등 미묘한 현안에 눈멀지 말아야 한다. 빼놓여지고 글썽된 한-일과거사를 진상 공개해야 한다. 정부차원이나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정확히 하고, 배상요구를 정정당당히 해야 한다. 정부는 부디 2억만리 남양군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해 정처없이 떠도는 영혼들을 조국의 품에서 쉬게 하여주길 바란다.

<김용왕 · 서울 중구 장충동2가>

본인의 할아버지께서는 일제 때 강제징용되어 1945년 10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戰병사(홍부육관총창)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지 올해가 50년이 되는 해인데, 유골도 찾지 못하고 배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든둘이신 할머니와 선일곱이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처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약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배상금은 무상원조 3억불, 유상원조 2억불, 민간상업차관 1억불인데 1945년 8월 15일 이전 희생자에 한해서만 배상을 해준다는 규정을 정부 마음대로 만들어서 1945년 8월 15일 이후 희생자는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경제부흥에 이바지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에서 보내온 배상청구희생자명단 <책2-10권, 129쪽>에 저의 할아버지 이름과 주소와 유가족이 나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협약 당시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의장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이가 민정으로 이양되면

김영도의 손자 김용왕이 조선일보 독자란에 게재한 글

이 문제가 국회에서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 빨리 매듭지어 대외명분을 세우려는 의도에서 '36년 일제치하의 한'을 모두 팔아먹는 매국 외교를 한 셈입니다. 박정희는 군사정권의 정략에 의해 민족감과 국가이익을 배반한 채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고, 정확한 산출 근거나 진상조사도 없었고,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김종필이는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약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신대와 강제징용자 등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한 일제의 만행은 '협약체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중요한 사실'임이 틀림없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국제협약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협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데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또 「人道에 反하는 죄」는 국제법상 시효만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불균형 시정 등 미묘한 현안에 눈멀지 말아야 합니다.

빼돌어지고, 굴절된 한·일 과거사의 진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가차원의 배상요구는 단순한 감정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배상청구권문제에 있어 보여온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과거사를 빨리 청산하는 것입니다.

문민정부는 5,6공 군사정권과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 과거는 어떠한지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만이 일제 치하 35년을 곱씹는 것 같은 굴욕감과 치욕감을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치유하고 잘 보듬어 안아서 세계화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정확히 하고 배상요구를 정정당당히 해야만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요, 정부요, 국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협약의 당사자 김종필은 당시 회담의 진행과 타결과정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할 장본인이며, 그리 해야만이 태평양전쟁 유

가족과 국민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희생자라고 해서 배상금을 못 받고 그 돈은 경제 부흥에 일조했으니 이제는 원금과 이자까지 더하여 정부로부터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역만리 남양군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희생된 국민들을 조국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강제징용되어 희생된 사람들은 그 당시 살아남은 자들을 대신하여 희생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있을 유골을 찾아주십시오.

5,6공 때에도 대통령께 여러 차례 편지도 했지만 무성의한 답신뿐이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이 곧 국가의 아픔이 아닐는지요. 바라옵건데 유골을 꼭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배상금을 정부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찾고 싶습니다. 셋째는 일본에게 배상청구를 국가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답신을 기원하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995년 2월 22일

김용왕 올림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

## 제4장

■  
끝  
나  
지  
않  
은  
전  
쟁

## 억울한 죽음, 일본정부와 싸우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징병으로 동원된 조선인 일본군(학도병 포함)과 조선인 군속(군무원) 약 60여만 명 중 약30%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군 아래에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일본이 점령한 곳의 포로수용소 감시원, 군기지 건설 작업 등에 이용됐다. 하지만 일본과 전쟁을 하는 연합군들에게는 똑같은 일본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일본군대와 일본군 군속(군무원)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중 일부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고(대흥 탄방리 출신 권웅상) 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죽음을 맞기도 했다.

해방 후 10월 23일 ‘우측 흉부관총상’으로 사망한 항일투사 김영도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지만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항복한 일본군이 전범재판이 진행되기 앞서 무단 총살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 포로수용소 감옥에서 해방을 맞은 김영도의 향후 활동이 일본군에 대한 응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김영도의 높은 항일투쟁의식과 거침 없는 의협심이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일본군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점이다. 그가 입은 ‘우측 흉부관총상’의 사망

기록이 말해주듯, 우측 흥부관총상은 조준사격에서 나타나는 총상이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이 퇴각 직전 후한을 없애기 위한 ‘보도연맹원’ 집단학살과도 흡사하다.

둘째는 일본군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자 연합군포로와 함께 풀려난 김영도가 일본군을 응징하고자 벌인 비밀활동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소남(싱가포르) 남방 제1병원에서 전병사’한 점이다. ‘소남(싱가포르) 남방 제1병원에서 전병사’한 기록은 2002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답변 자료이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 동원한 조선인 가운데 수만 명 분의 명부가 증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은폐, 방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김중철 씨가 지난 2002년부터 아버지의 징병 사실과 유해 행방을 찾겠다고 결심한 후 일본정부에 서신을 보냈다. 최초의 서신에는 입증할 수 있는 명부, 군번, 근무 위치 등을 파악해 사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현재 후생성(정부)이 갖고 있는 명부로는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거듭된 질문에 “구 일본육군과 해군 관련 명부는 후생성에 전부 인계됐으나 전쟁 혼란 상황 등 때문에 부대별 명부 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후생성의 이러한 답변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명부가 상당수 ‘증발된 상태’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병적부 등 입대 사실조차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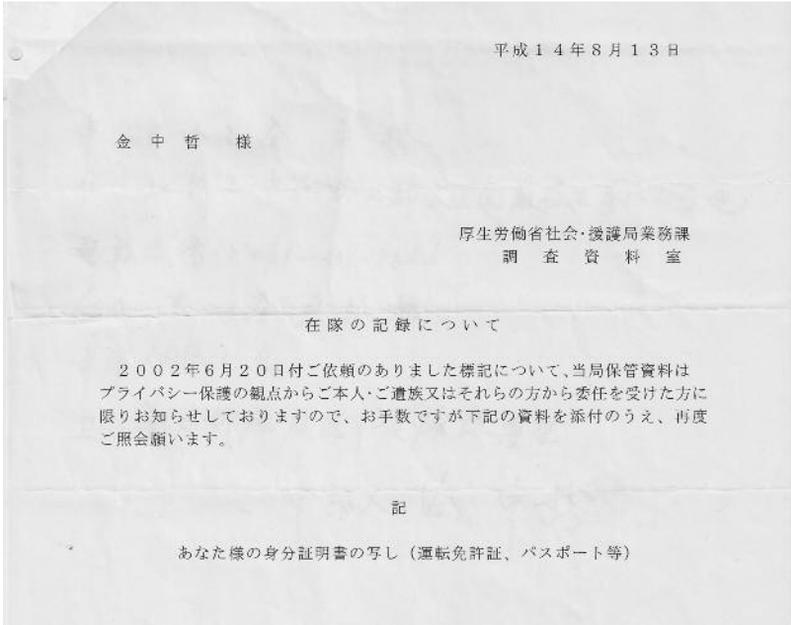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아들 김중철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이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사망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들 중철은 유해를 못 찾은 아버지의 죽음을 사망처리 한다는 것은 자식 된 도리가 아닌 ‘불효’라 생각했다. 그러나 9년 동안 미루어 오다가 더 이상 미룰 순 없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중철은 눈물을 머금고 대של면사무소 호적계를 찾았다. 호적계장 정성호 씨는 이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사망사실 증명서가 있으니 더 이상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네. 마음 아파도 사망신고를 해야지 할 수 없네.”

호적계장이 위로 섞인 말을 전했다. 중철은 몸이 떨렸다. 자식이 죄를 짓는 것 같아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 날이 1982년 2월 9일이다. 실제 살아계셨다면 이 날보다 더 오래 사셨을 것이다.

## 2002년 8월 13일 답변서



2002년 8월 13일

김중철님

후생로동성 사회원호국 업무과  
조사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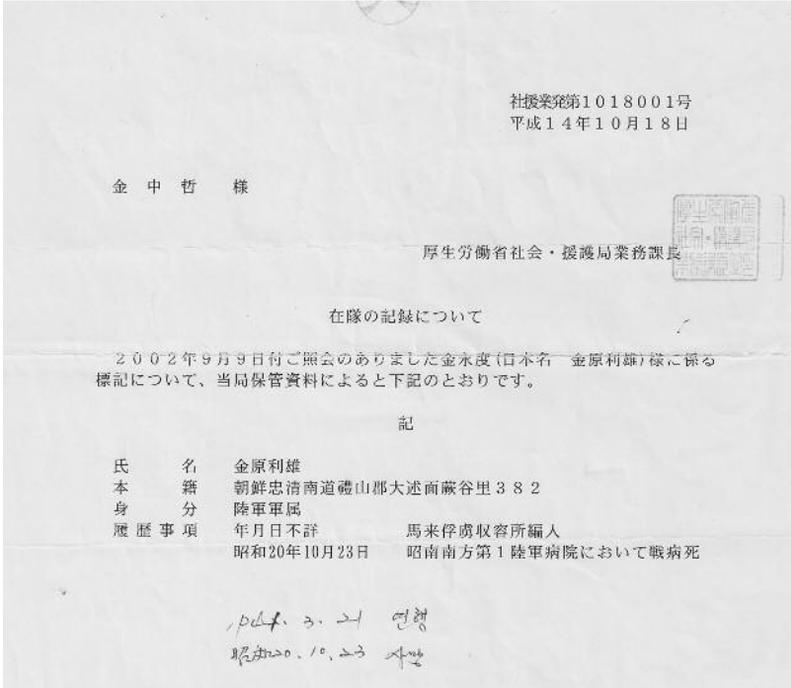
재대(在隊) 기록에 대해서

2002년 6월 20일 의뢰하신 표기에 대해서, 당국 보관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본인·유족 또는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한하여 알리게 되므로, 번거롭지만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후 다시 조회 바랍니다.

기

당신의 신분증명서 사본(운전면허증 여권 등)

2002년 10월 18일 답변서



사원업발 제1018001호  
2002년(헤이세이14년) 10월 18일

김중철 님

후생노동상 사회·원호국 업무과장

재대(在隊)의 기록에 대해서

2002년 9월 9일 부 조회하신 김영도(일본 명 카네하라(칸파라) 토시오)님에 관한 표기에 대해서, 당국 보관 자료에 의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씨 명 金原利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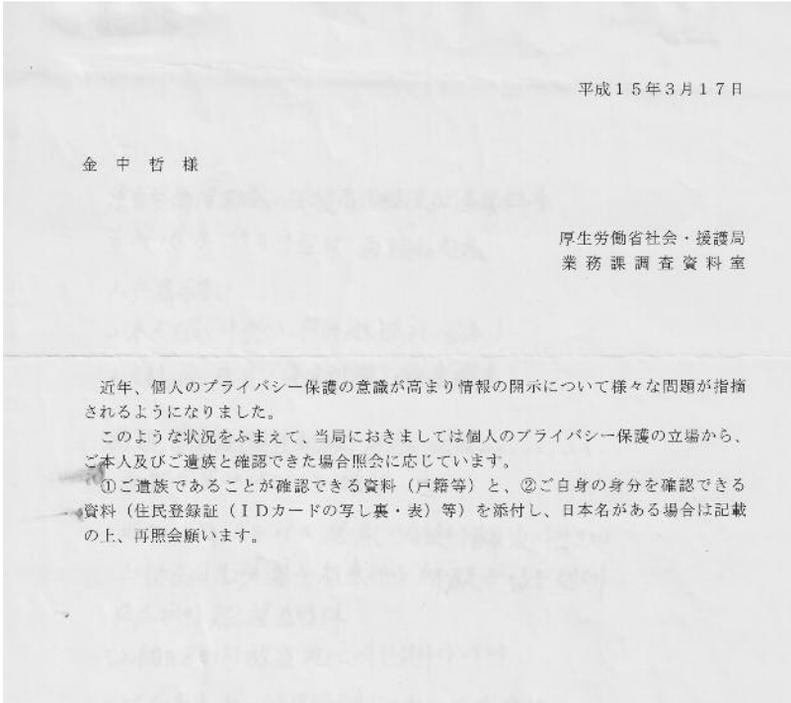
본 적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蕨곡리 382

신 분 육군군속

이력사항 연월인 불상                      마래 부로 수용소 편입

1945년(소화)20년 10월 23일 소남 남방 제1병원에서 전병사

2003년 3월 17일 답변서



平成15年3月17日

金 中 哲 様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  
業務課調査資料室

近年、個人のプライバシー保護の意識が高まり情報の開示について様々な問題が指摘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な状況をふまえて、当局におきましては個人のプライバシー保護の立場から、ご本人及びご遺族と確認できた場合照会に応じています。

①ご遺族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資料（戸籍等）と、②ご自身の身分を確認できる資料（住民登録証（IDカードの写し裏・表）等）を添付し、日本名がある場合は記載の上、再照会願います。

평성15년 3월 17일

김 중 철 님

후생로동성 사회·원호국  
업무과 조사 자료실

근년, 개인 프라이버시보호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 개시에 대한 여러 문제가 지적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 해서, 당국으로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보호이란 입장에서 본인 및 유가족이라고 확인된 경우에 조회에 응하고 있습니다.

①유가족이라고 확인 가능한 자료(호적 등)와 ②자산의 신분확인 가능한 자료.(주민등록증(ID카드 앞뒤 사본)등)를 첨부하여, 일본 명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고 재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상 사회·원호국 업무과 조사 자료실  
헤이세이 15년 3월 17일자 송부 재조회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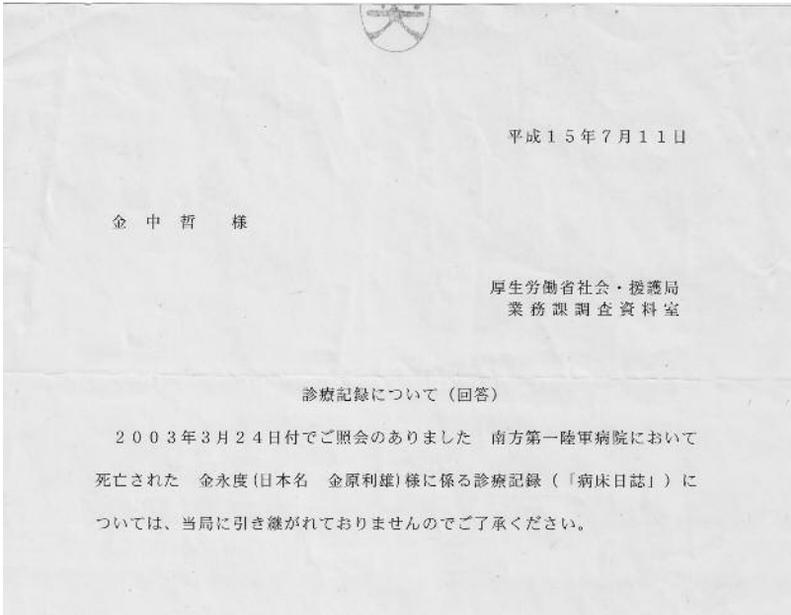
1. 호적사본 1
2. 본인(김중철) 주민등록 사본 1
3. 부친 김영도 (가네하라토시오) 제적등본 1

※ 부친 김영도 (가네하라토시오) 사망일 1945년 10월 23일  
사원업 제1018001호 확인

- 1945년 8월 15일 종전 이후에 귀가시켰으면  
그리운 부모 형제 처자 상봉해야 소원은 없을 텐데  
일본국이 원망스럽다.
- 2개월 8일간 방치사시킨 것이 아니냐.
- 소남 남방 제1육군병원에서 전병사  
병원치료자료 요망.  
대한민국 충남 예산군 대술면 곁곡리 382

김 중 철

2003년 7월 11일 답변서



2003년(헤이세이15년) 7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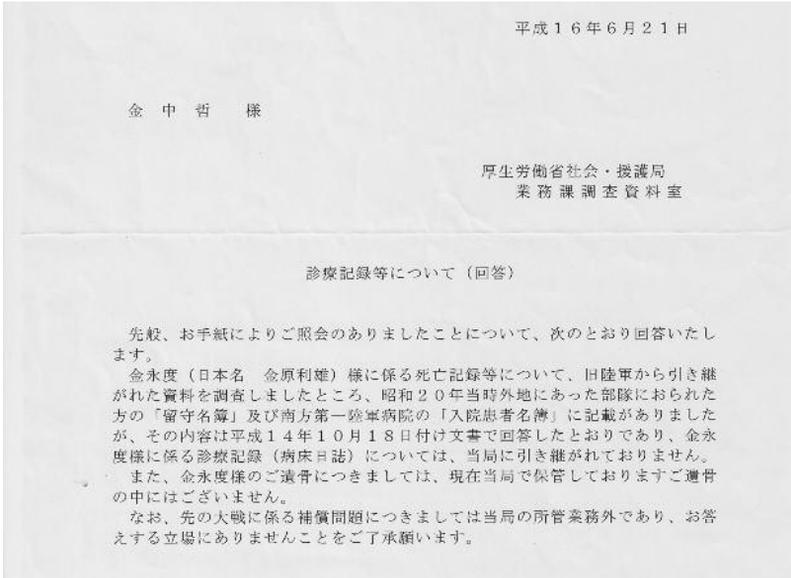
김 중철 님

후생로동성 사회·원호국  
업무과 조사 자료실

진료기록에 대해서 (회답)

2003년 3월 24일 부로 조회하신 남방제일육군병원에서 사망하신 김영도(일본명 金原利雄)님에 관한 진료기록(병상일지)에 대해서는 당국에 인수이계된 바가 없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6월 21일 답변서



2004년(헤이세이16년) 6월 21일

김 중 철 님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업무과 조사 자료실

###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 (회답)

지난번 편지로 조회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답하겠습니다.

김영도(일본명 金原利雄)님에 관한 사망기록 등에 대해서, 구 육군에서 인수한 자료를 조사했는데, 1945년 당시 외지에 있던 부대에 계신 분의「류수(留守)명부」 및 남방 제일육군병원「입원환자명부」에 기재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헤이세이 14년 10월 18일 부 문서로 회담한 대로이며, 김영도님에 관한 진료기록(병상일지)에 대해서는 당국에 인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영도님의 유골에 대해서는 현재 당국에서 보관하는 유골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대전에 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 소관업무 외이므로, 회담하는 입장이 아닌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김영도의 자료를 찾기 위한 아들 김중철과 손자 김용왕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료 요청을 하였다. 번역은 옥스포드 대학 출신으로 유럽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석대 상윤안 교수가 맡아 주었다.

## 김영도 관련 재판기록 자료 열람 요청서

국제사법재판소 귀중

저는 김영도의 활동기록을 연구하는 예산역사연구소 소장 박성목입니다. 김영도(金永度)의 창씨개명은 金原利雄(カネハラ トシオ카ネ하라 토시오)입니다.

1910년 대한민국 예산군 대술면 꺾곡리에서 태어나 예산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일제 강제군속에 이끌려 말레이시아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청년들과 항일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여 일본군 암살처단 및 군수물품 탈취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1944년 3월 체포돼 2년형을 언도 받아 싱가포르 남방사령부 감옥에서 복역 중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상태로 1945년 10월 23일 일본군에게 흉부총상을 당해 사망했고 유해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도의 포로감시원 자료는 1942년 9월 8일부터 1945년 8월 25일 기간 동안 일본군이 관리하던 말레이포로수용소에 고용되었던 「조선출신고용인연명부」에 수록돼 있습니다.

「조선출신고용인연명부」에는 김영도가 1944년 3월 18일 ‘업무상 횡령 절도’로 인해 징역2년을 언도 받은 내용과 비밀결사단원 7인 모두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포로감시원으로 일하다 고려독립청년당을 조

직한 이상문(李相汶, 1920~2016) 선생도 ‘암바라와 의거’와 관련 재판기록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발견돼 독립활동 사실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남방사령부 재판기록(포로감시원 재판 기록 포함)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포로감시원 김영도의 항일활동은 국가보훈자 대상 선정에 해당되기에 재판 관련자료와 판결문을 찾고자 합니다.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8. 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길23번길 5  
예산역사연구소 소장 박성묵

The Trial Record and Judgement Writing Request for  
Kim Young-Do (1910-1945)

Dear Sir/Madam,

I am writing to request a copy of the Trial Records and judgement writing for Kim Young-do's case back in 1940s.

Kim Young-do (金永度)'s Japanese name is Kanehara Toshi (金原利雄/カネハラ トシオ), who was born in Yesan-Gun, Daesul-Myeon, Gwolgok-Ri, South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y in 1910. He was sent to the Concentration Camp in Malaysia as a Japanese forced Prisoner watchman in 1942 soon after finishing his primary school. During this period, he established Anti-Japanese movement group with other Korean youngsters which they attempted to assassinate the Japanese soldiers and seize munitions. But after two years, in March 1944, he was arrested for this Anti-Japanese movement, sentenced to two years, and served in the Southern Singapore Prison. In 1945 when he was still in the prison, South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23rd of October in the same year, he died – shot by Japanese Soldiers in the chest, and he had a Malaria infection at that time. We still have not found his body.

Documents and work records for Kim Young-do's as a Japanese forced Prisoner watchman from 8th September 1942 to 25th August 1945 can be found in the Korean Workers list managed by the Japanese Soldiers. In this Korean Workers list, it states that Kim Young-do was arrested on a charge of embezzlement for two years along with other seven fellows.

Lee Sang-Moon(李相汶 1920–2016) who had a similar case in Java, Indonesia received recogni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his independence movement activities to the country.

When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all judgement writings and records (including the Japanese forced prisoner watchman Kim Young-do's case, we presume) was forward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manage. Kim Young-do needs to be nominated as a Man of National Meri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fore we kindly ask you to provide his Judgement writing along with all related records.

With your immediate attention, this matter would be highly appreciated and please contact me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concern.

Yours faithfully,

Sung-Mook PARK

Head of Yesan History Research Institute

Sansung-Gil 23-5, Yesan-eup, Yesan-gun, Chung-nam  
South Korea (ROK)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는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답장이 없는 상태이다.

## 야스쿠니 신사에 모신 김영도 위패

김영도의 위패가 유족들도 모르게 야스쿠니에 합사됐다. 야스쿠니가 어떤 곳인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 야스쿠니신사이다. 거기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총리를 비롯하여 극우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곳이다. 이곳에 김영도의 위패가 있다는 건 유족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다름 아닌 민족적 수치다. 일본에서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될 경우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저들은 한국의 유가족들에게는 전혀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합사를 진행하였다. 김영도의 아들 김중철은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기록을 찾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였다. 아버지가 야스쿠니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경악과 분노는 차마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그동안 생사를 몰라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영혼마저 저들의 손아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야스쿠니 합사는 결과적으로 김영도가 가해자인 일본을 위해 죽었다는 걸 공식화하는 것이다. 한국이 독립주권국가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천황

의 군대, 곧 황군으로 참여한 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성전(聖戰)으로 미화했고, 전쟁에서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신’으로 떠받들어 안치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인 일본군과 군무원(군속), 민간인 등과 조선인으로 강제 연행되어 일본군대와 군무원, 강제징용(강제노역)에 끌려갔던 사람들 2만여 명까지 합하여 총 246만 6천여 명이 안치되어 있다.

남과 북이 일제에 강제징용됐던 조선인들의 유골 송환을 위해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희생자들의 유골송환에 함께 나서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 상임의장 김홍걸)는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약 2,200구가 일본의 사찰 등에 안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강제징용, 강제징병)되어 타국에서 원통하게 세상을 떠난 조선인 희생자를 야스쿠니에 안치한 일을 두고 일본 측은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조선인도 일본천황을 위해 싸우다 죽은 ‘황국신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영도는 일본 군복을 입었지만 그는 분명, 조국 독립을 위해 비밀결사 활동을 펼쳤다. 적도의 땅에서 일본천황의 군국주의 세력을 처단하였다. 그의 유해가 어떤 경로를 거쳐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 모신 타자화 된 영도의 영혼을 어떻게 대한독립의 열혈남아로 주체화 할 것인가.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결할 책무라 하던데 적도의 땅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친 많은 김영도의 영혼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의 침략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이다.

## 끝나지 않은 한일청구권 협정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하여 야스쿠니 무단 합사, 강제노동, 사할린 억류, 시베리아 억류자, BC급전범, 여자근로정신대, 유골봉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에는 여전히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있다. 자학사관이라는 이유로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잖다. 근현대사 전쟁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지난 한일청구권협정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조약을 체결할 때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한일청구권협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영어로 된 서류가 없다. 전 세계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문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일미국대사가 한일 간의 조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한 문서뿐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할 당시의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성찰해야 한다. 우리 땅에서 수백만 명이 징용에 끌려갔는데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전시 조선인의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책임 문제를 후세대에게 어떤 방법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는가?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식민지역사 부정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해방 후 친일청산조차 하지 못한 질곡의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위정자들은 눈앞에 닥친 현안의 해결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부르짖어 왔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한일관계 고정 레퍼토리가 된 지 오래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그칠 줄 모르고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 일본 정부는 침략역사와 반인륜적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진심어린 사죄가 우선이다. 피해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한 뒤에야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 징병자와 징용자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비협조와 우리 정부의 무성의로 명단은커녕, 그 규모마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가 2006년이 되어서야 정부차원에서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피해자 신청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명단이 확보되었다. 당시 신청대상은 일제 강점기인 만주사변(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당사자 또는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신고 사유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직접적인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 보증서’를 붙이면 되었다.

1943년 평양에서 이발사로 일하던 여운택(1923~2013) 씨는 일본제철 오사카 공장에 강제징용돼 혹독한 노역을 했다. 태평양전쟁을 맞아

군수물을 보급하던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된 것이다.

여씨는 1997년 일본에서 신일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는 원심 패소 판결을 깨고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되었다. 이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2013년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 되었다. 대법원은 2013년 이 사건을 넘겨받고 5년이 다 되도록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타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해방 후에도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어 지난한 법정싸움 끝에 이긴 재판조차도 제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이 되었으니 그들의 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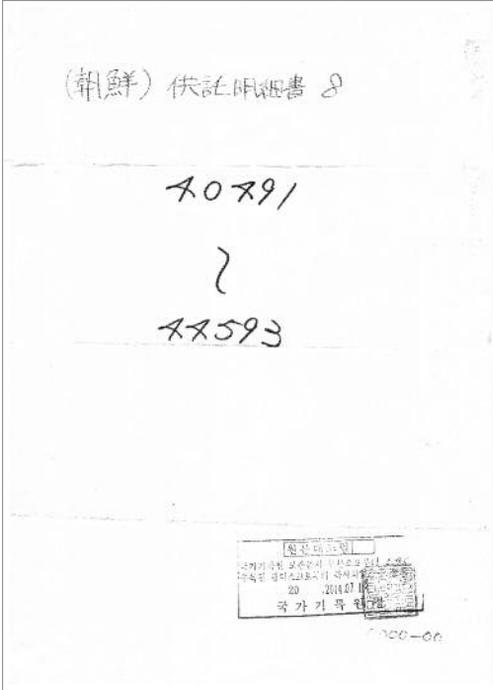
2016년 3월 일본 정부는 ‘전몰자유골수집추진법’을 제정하여 2차 대전 당시의 전몰자 유골수집사업을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유골수집사업의 대상에서 한국인 전몰자는 배제되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전몰자들의 유골은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가 한국인 전사자의 유골 봉환에 일본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사회 속에는 그리고 아시아 피지배국가에는 지금도 ‘강제징용’ ‘강제군속’ ‘강제위안부’ 등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지금도 사죄와 배상이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끌어낼 것인가?

박근혜 정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서 피

해 당사자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토를 달고 합의가 선언되었다. 피해자들을 또 다시 울리는 졸속협상이었다. 국민 단 한 사람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였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합의에서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다.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당연히 일본 정부의 반발은 거세었다. 국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쉽사리 파기 선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8년 1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파기’라는 말은 없으나 이미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합의라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의 고통과 저항을 뛰어넘을 수는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방법은 찾아보면 찾아진다.

일본군 ‘강제징용자’ ‘강제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엔 나라가 약해서, 나라가 없어서 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국가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6위 수출대국이고, 4,221억 달러로 세계경제규모 순위 13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대일본 청구권 소송, 야스쿠니 위패 송환 등 정부는 성의 있는 대답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김영도의 강제징용 공탁금이 현재  
일본은행에 그대로 남아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자료)

43535	金原 利雄 道族金原利雄	忠清南道 礼山郡大速面 燕谷里 282	1420	1420	元陸軍軍人 その他
43536	水山 彦香	同 初在 上 方山里 109	815	815	元陸軍軍人 その他
43537	八木 賢陽	同 花川 上 里 154	580	580	元陸軍軍人 その他
43538	山本 養泰	同 山亭 上 里 294	956	956	元陸軍軍人 その他
43539	金原 在英	同 炭防 上 里 161	580	580	元陸軍軍人 その他
43540	山本 用泰	同 栗洞 上 里	580	580	元陸軍軍人 その他
43541	山本 用泰	同 校村 上 里	642	642	元陸軍軍人 その他
			5833		

재 정 경 제 원

우 427-760 / 경기 과천 중앙 1 / 전화 (02)503-9280 / 전송 (02)503-9282 / 담당: 이재욱

문서번호 국고 45107-373

시행일자 1996. 4. 22.

수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1-3 주공아파트  
106동 202호 김 용 왕

제목 민원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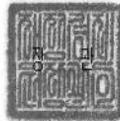
1. 귀하가 '96. 4. 16 우리원에 FAX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중 우리원의 소관사항인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은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예관법률"과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의 편의도모와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리사무국(구 재무부) 및 전국 30개 세무서를 신고취급기관으로 하여 '71. 5. 21부터 '72. 3. 20까지(10개월간) 청구권 신고를 받아,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및 자료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75. 7. 1부터 '77. 6.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또한 정부는 신고 및 보상대상자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신문·방송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신고인에게는 개별적인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고 이익신청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보상금 지급업무가 '77. 6. 30자로 종결되었고, 보상관련 근거법률도 '82. 12. 31자로 모두 폐지된 현시점에서는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 정 경 제 원



##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110-716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번지 전화 : 735-0114-7 팩스 : 735-6093

문서번호 : 조사일07000- 40605

사건번호 : 96고충1371

시행일자 : 1996. 6.

수 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621-3번지 주공아파트 106동  
202호 김 용 황 귀하

제 목 :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회신

1. 귀하가 1996.4.15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 (96고충1371 정용 사망자 대일손해배상) 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방이후 정용사망자(신청인의 조부 포함)에 대해서도 정부가 1965년 일본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1975.7.1부터 1977.6.30까지 대일민간청구권 관련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할 때 해방이후 정용사망자들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그 당시 우리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우리국민 전체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 속하며 국민 개개인의 보상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더구나 대일민간청구권 관련 법령이 1982.12.31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의 민원은 수용이 불가능하고 별도 입법조치와 국고지원 또는 일본과의 협상을 요하는 국가정책관련 사항이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 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위 원 장



## 식민침략 반성하지 않는 일본

일본은 1875년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치외법권을 강요하는 불평등조약을 조선에 강요했다. 일본은 전쟁까지 불사하며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은 조선 조정이 청국에게 공식적인 원병 요청을 하기 하루 전인 6월 2일 일본 각의에서 조선 출병을 결정하고 임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탐관오리의 수탈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키자,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치 못하고 마침내 청국 군대를 끌어들었다. 그러자 일본은 청국보다 더 많은 군대를 조선에 보냈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군보다 한양도성에 먼저 입성한 일본군은 7월 23일 새벽 조선 궁중에 난입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했다.

서구 열강들의 예상과는 달리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국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강국임을 증명해 보였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했다. 일제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는 ‘가쓰라-테프트조약’을 체결했

다. 이 합의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일제는 같은 해 11월 17일 한국에 을사늑약을 체결해 결국 1910년, 한일병탄으로 이어져 망국의 수난사가 시작되었다.

1910년 8월 29일, 경복궁 근정전에 일장기가 내걸렸다. 우리 5천년 역사상 이민족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경술국치’로 부르는 망국의 해에 태어난 김영도도 ‘망국민’이 되어 성장하면서 나라 없는 설움과 함께 혹독하고 악랄한 일제강점기를 맞아야 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통감부 대신 총독부를 설치하여 무단 탄압통치를 하였다. 항일민족운동의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으로 애국인사들을 대량으로 체포, 구금하는 일에 나섰다. 그리고 민족교육을 금지시키기 위해 조선교육령(1911)과 사립학교규칙 그리고 서당규칙(1918) 등을 제정하여 학교의 설치와 교육내용을 총독부가 통제하였다. 그리하여 민족 교육은 급속히 약화되고, 식민지 노예교육이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없애기 위해 민족문화유산을 철저히 파괴하여 일본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을사늑약 이후부터는 토지 침탈에 광분하고 있던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해 토지 침탈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인적 자원까지 수탈하여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야말로 모든 물자는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

해방 73년이 되었어도 일본은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아베 내각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를 계속하고 있고, 일본의 <2018년 고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화와 러일전쟁 결과가 아시아 제민족의 독립과 근대화 운동에 주는 영향’을 명시해 독도 영유권 왜곡, 침략전쟁, 식민지배 미화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그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1971년 어느 날, 김영도가 떠났던 옛집 대술면 꺾곡리 382번지에 한 통의 서신이 날아왔다. 김영도가 사망하였으니 보상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상신청 하라’고 하던 국가는 김영도가 8월 15일 이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김영도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도의 독립투쟁기록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 인정해 주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외면하고 있고, 한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일본은 아직도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잘못된 침략에 대한 정당한 배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

태평양전쟁의 최대 책임자였던 일왕 히로히토[裕仁]를 비롯해 적지 않은 전쟁범죄자들이 처벌을 비켜갔다. 난징대학살(1937)의 지휘관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朝香宮鳩彦]를 비롯한 주요 일본 왕족들도 처벌을 면했다. ‘전쟁 범죄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 포츠담선언에 따른 재판에도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 그밖에 만주국의 실력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아이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됐지만 석방됐다. 처벌받아야 할 전쟁범죄자들은 전후 일본의 주류로 복귀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청년들이 수행했던 포로감시원과 같은 하위 군인과 군무원은 BC급 전범으로 몰렸다. BC급 전범에 대한 재판은 연

---

합국 피해 당사국에 의해 이뤄졌다. 주로 포로 학대혐의로 기소된 BC급 전범 가운데에는 148명이 조선인이었다. 이들 중 23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고, 125명이 유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전범재판을 담당하는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은 ‘모국어로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권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변호는 일본인 변호사가 맡았고 재판은 영어로 진행됐다.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목숨을 잃거나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 60년 넘게 일본정부와 싸운 92세 ‘BC급 전범’ 이학래 서평

억울하게 전범으로 몰린 피해자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선인 전범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일본정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배상과 보상’은 “한일조약으로 이미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이런 행태에는 역사적 관점에서 미국의 책임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더 무서운 건 큰 틀에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이며 다음으로

---

식민지 침략역사의 부정을 넘어 다시 그 길로 가려는 일본의 역사 퇴행이다. 현재 일본이 퇴행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름 아닌 군국주의 부활이다. 침략역사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역사왜곡이란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일본 재무장을 최대한 발판으로 삼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위협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일본의 평화국가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다. 최대 규모로 팽창한 방위예산으로 고성능 무기를 사들여 공격력을 강화하고 장애가 되는 헌법 9조를 개정하려고 한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그 자체를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위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다. 일본의 반성 없는 극우행태는 결국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져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세계평화를 깨는 행위임을 똑바로 보자. 그런 자각과 실천만이 수많은 애국선열의 참뜻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김영도의 고향집 산자락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추모식 (2017. 10. 23)

예산문화원 향토문화사업

## 적도의 항일투사 김영도

발 행 2018년 10월 20일

지 은 이 박성목

펴 낸 이 김시운

펴 낸 곳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대회리)

전화 041-335-2441

감 수 신익선

제 작 처 도서출판 내포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182 1층 109호

전화 070-7761-6537

© 박성목 2018

ISBN 979-11-959886-7-9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청년들이 일제 군  
속에 강제 징집되어 남양군도에서 전쟁의 총알받이가 된 죽음의 역사,  
그리고 그곳 적도의 열기보다 뜨겁게 조국독립 투쟁에 몸 바친 수많은  
조선청년들의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대술 꺾꼭리 출신 김영도의 삶이 일제  
강점기 시작부터 일제군국주의의 가장 잔혹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  
까지 그 비참한 역사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문에서

[비매품]



ISBN 979-11-959886-7-9